

코스피 2864.24 (-25.86)	코스닥 943.94 (-13.96)
금리 (3년) 2.127 (-0.021)	환율 (원/달러) 1190.10 (-2.60) (18일)



Economy

신화손해보험 SHINWA
심고 저렴한 자동차보험
1899-9682

▶ 1인용부터 4인용 차량 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합니다. ▶ 30년 이상 운영된 신뢰받는 보험사입니다. ▶ 고객 맞춤형 보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험금 지급이 빠르고 확실합니다. ▶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국 주요 도시에서 영업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빨라지는 전기차 시장... 배터리 소재 공급망 확충 '열일'

후업계, 총성없는 친환경 전쟁
LG화학, 양극재 생산공장 추가건설
SK, 음극재 전지박·분리막사업 확대
삼성SDI, 양극재 생산업체와 합작
포스코, GM과 양극재 합작사 설립

국내 주요그룹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차의 가파른 성장에 맞춰 배터리 소재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LG화학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화학업체뿐만 아니라 포스코도 배터리 소재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호주와 유럽 등도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의 거대한 시장 규모를 앞섰으며 한국에서는 지난해 전기차 신규 등록대수가 처음으로 10만대를 넘어섰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은 이차전지 4대 핵심소재(양극재·음극재· 전해액·분리막) 중 원가 비중이 가장 높은 양극재 생산을

강화한다. 배터리의 용량과 수명을 결정하는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에 달한다. 기존 청주·익산·중국 우시에 이어 경북 구미에 연간 6만톤 규모의 '배터리 양극재' 생산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LG화학의 구미 공장은 단일 기준 세계 최대 규모로, 연간 고성능 순수 전기차(EV·500km 주행 가능) 약 50만대분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엔 착공한 구미 공장은 LG화학이 집중 육성하고 있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용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 양극재 전용 라인으로 구축된다. LG화학의 양극재 생산 증대로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생산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LG화학이 생산하는 양극재를 전량 소화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생산량을 400GWh(전기차 배터리 용량 70KWh 환산 시 571만대 규모)까지 확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인 SK온을 설립한 SK는 음극재 전지박(SK C)과 분리막(SK아이이테크놀로지)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SKC는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에 5만톤 규모의 공장을 착공한 데 이어 11월에는 폴란드에 추가 생

산기지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도 지난해 10월 폴란드에서 분리막 1공장 준공에 들어가는 등 생산능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SK는 기존 흑연 음극재에서 안정성을 더 높은 실리콘 음극재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SK머티리얼즈는 지난해 9월 경북 상주시에 총 8500억원 규모의 실리콘 음극재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SDI는 지난해 자회사 에스티엠(STM)에 양극재 제조 설비 등을 양도, 제조·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또 양극재 생산증설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도 참여했으며, 재작년에는 양극재 생산업체인 에코프로비엠과 합작사(에코프로이엠) 설립에 나선 바 있다. 에코프로이엠은 올 상반기부터 경북 포항에서 본격적인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 생산에 나선다. 포스코 그룹은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지는 않고 있지만 리튬, 니켈, 흑연 등 핵심 소재에 대한 공급 우위 능력을 강점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고 있다. 지난달 포스코케미칼은 미국 제너럴모터스(GM)와 양극재 합작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내외 23개 사업자들이 해운법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며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약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23개 선사 15년간 '짬짜미' 운임담합 거부땐 왕따시켜

공정위, 962억 과징금 부과
국내의 23개 선사가 15년간 해상 운임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담합에서 이탈하는 선사에게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하려 했고, 인상된 운임을 거부한 화주에 대해서는 단체로 선적을 거부하는 행태도 보였다. 해운법상 허용되는 공동행위 여부에 대해선 절차상·내용상 요건을 지키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12월 ~ 2018년 12월까지 약 15년 간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23개 국내의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기사 3면)**

담합에 가담한 선사는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범주해운, 에스엠상선, 에이치엠엠, 장금상선, 천경해운, 팬오션, 흥아라인, 흥아해운 등 국내선사 12개사와 대만·싱가포르·홍콩 외국적 선사 11개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망라적으로 합의했다. 운임인상 방식 중 운임인상 폭을 결정하는 방식인 'RR 방식'보다는 최저운임을 결정하는 'AMR 방식'과 부대운임 도입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합의대상으로 선택

했다. 담합은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의 동시 운임인상에 대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현 흥아라인) 등 주요 국내선사 사장들 간 교감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이후 이의 국제선사와 외국적 선사들이 차례로 담합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했고, 특히 국제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통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총 6억3000만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선사들은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 대외적으로 선사들 간의 해 운임을 결정된 것이 아니라 개별 선사 자체 판단으로 운임을 결정했다고 알렸고, 담합으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운임인상 금액은 천 원, 시행일은 2~3일 정도 차이를 뒀다. 또 최저운임, 투찰가 결정 내역 등을 대외비로 관리하기도 했다. 나아가,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물량 이동 제한) 하고,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LG엔솔 청약 첫날, 증거금 32조 '역대급'

미래에셋증권 경쟁률 95.86대 1 '최고' 균등배정 청약자 1주도 못 받을 수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에서 1경5000조에 달하는 주문액을 달성하며 화제를 모은 LG에너지솔루션(LG엔솔)의 청약 열기는 역시나 뜨거웠다. 일반인 청약 첫날인 18일에만 32조원이 넘는 증거금이 몰렸다. 특히 벌써 균등배정을 통해 한 주도 받지 못하는 증권사도 나왔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일반 청약을 받는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7개 증권사에 청약 증거금이 대거 몰렸다. 이날 청약 건수는 약 237만3900개에 이른다. 가장 많은 물량이 배정된 KB증권에는 약 130만건이 넘는 계좌가 몰렸다. 이어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이 각각 41만5000건, 29만2300건에 달했다. 미래에셋증권(약 26만8600건), 하나금융투자(약 5만4000건), 신영증권(약 2만7400건), 하이투자증권(약 2만4700건)이 뒤를



LG에너지솔루션 일반 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신한금융투자에 고객들이 투자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이였다. 이날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경쟁률은 95.86이며 이미 청약건수가 균등배정물량을 넘어섰다. 미래에셋에 이날 배정된 수량인 22만1354주(균등배정 물량 11만677주)를 넘어 13만건의 계좌가 몰렸다. 계좌당 균등배정 주식수는 0.7주로 균등배정을 노린 청약자들은 1주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대표주관사인 KB증권의 경쟁률은

25.24대 1이다. 청약건수는 129만9764건이고 예상되는 균등 배정 수량은 1.87주다. 경쟁률이 가장 낮은 증권사는 대신증권의 9.87대 1이다. 청약건수는 29만2370건이고 예상 균등 배정 수량은 4.16주이다. 신한금융투자의 경쟁률은 15.87대 1이다. 청약건수는 41만5500건이고 예상 균 등 배정 수량은 2.97주이다. **(4면에 계속)**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뉴스리뷰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문대통령 "천궁-II UAE 수출, 소중한 우정의 결실"
- ▲ 이재명 "임금공시제 도입, 성별 격차 개선"... 이대내 공략

- ▲ 윤석열, '김건희 미투 언급' 사과 요구에 "더 드릴 말씀 없다"
- ▲ 국방부, 잇단 북 미사일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군사위협"



- ▲ 안철수 "양자 TV토론 불공정... 법적 조치 취할 것"
- ▲ 강경화, 20일 ILO 사무총장 후보 공개청문회... 제네바로 출국

함영주 사법리스크 벗어나… 하나금융, 회장후보 내달 말 윤곽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중징계 취소’ 소송 내달 16일 선고
채용문제 관련 1심 내달 25일 선고
업계, 두 재판 모두 승소전례 있어
법원판결 ‘무죄’ 선고 가능성 무거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법적 리스크 해소여부가 내달 말 결론 날 전망이다.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함 부회장이 유력한 만큼 내달 말께 하나금융 회장 후보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16일 서울행정법원은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함 부회장, 내달 말 재판 결론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DLF를 불완전판매했다며 6개월 업무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하나금융그룹

장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2019년 하반기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함 부회장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최종변론에서 하나은행 측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규정하는 투자자 정보 확인서 양식 등을 활용하는 등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하나은행 법규에 맞는 제도를 유지해 왔다”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완료한 점 등을 들어 함 부회장의 직업선택 기본권을 제한하는 징계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 부회장은 내달 25일 채용문제와 관련한 1심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 결과…회장 후보 슛리스트 영향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는 내달 말이 돼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최근 하나금융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회장 후보군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함 부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유력한 만큼 재판 결론에 따라 슛리스트와 최종 후보군이 달라질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두 재판 모두 승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함 부회장과 같은 DLF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고 했다.

채용 관련 함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채용비리는 처벌하는 법규가 없어서 채용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해 면접관과 기업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다루고 있는 사안에 대해 처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2월 말 결정되는 함 부회장의 재판 결정에 따라 하나금융 회장 후보리스트도 변동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백신 부작용 청소년 의료비 1000만원 지급

교육부, 코로나19 극복 학생 지원방안
심리·신체상해 치료비 최대 600만원

백신접종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 발생
인과성 인정안된 학생에 500만원 지원

정부가 청소년 대상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해 최대 1000만원의 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등 정신건강 심리지원에도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전문가 심리지원과 정신 및 신체상해 치료비로 각각 최대 300만원(총 6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확진 및 완치 학생 7만9000여명(2020년5월 이후 현재까지)을 대상으로 정신과전문의와 연계해 심리안정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살·자해 시도 등 고위험군 학생에 대해선 학생 또는 보호자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신청해 지원 충족여부 검토 후 최대 600만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원토록 했다.

또 정신건강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모바일 기반의 24시간 비대면 상담서비스인 ‘청소년 위기문자 상담방(다들어줄개)’도 지속 운영한다.

청소년 백신접종부작용에 대한 의료비도 지급한다. 백신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 반응 등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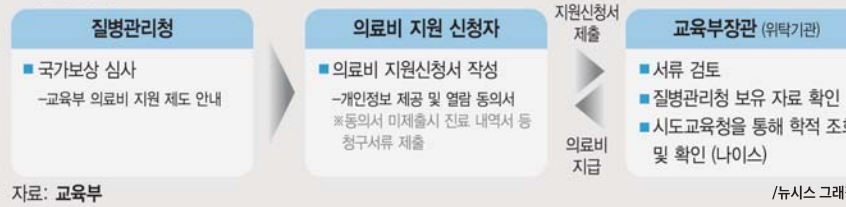
코로나 백신접종 이상반응 학생 건강회복 지원

사업기간 2022년 2월 ~ 2023년 5월

지원대상 백신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인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발생한 중증 이상반응으로 인해 국가보상을 신청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한 자

지급한도 개인별 5백만원 한도 (교육급여 대상자 중 지급 요청금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5백만원 한도 내 추가지원)

지원절차



중증 이상 반응은 증상이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인 경우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기각’ 결정은 받았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기각 결정을 받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별 총액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등을 지급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대상자 중 의료비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추가 5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교육부는 이번 지원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되, 추후 코로나19 확산 및 의료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번 치료비 지원 예산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온·오프라인 맞춤형 개인쇼핑몰 창업

창업비용 99만원

나만의 맞춤형 개인 쇼핑몰 제공 평생 수익 창출

200여개 흥삼제품
+3만여개 인기상품
+자체상품 등록 판매가능

25년 역사 브레인 TV 방송국소유 핫터그룹

대한흥삼주식회사/㈜핫터라이프 T.010-4480-0045

“화학업계, 소재시장 치열한 경쟁 예상”

» 1면 ‘수업계, 충성없는 친환경’서 계속

포스코는 소재 광물 확보에 역량을 기울이며 국내 대표 철강 기업에서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사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스웨덴 업체 노스볼트는 올해 첫 번째 리튬이온 배터리 셀 생산에 성공했다. 유럽 배터리 회사가 자체적으로 설계·개발해 배터리 셀을 조립한 것은 처음이다. 노스볼트는 유럽에 추가 공장 건설도 계획 중이다.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생산량을 150GWh 이상으로 확대,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 20~25%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업계 관계자는 “각 국가별도 갈수록 강해지는 환경 규제와 보조금으로 전기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화학업계는 전기차의 핵심 부품으로 급성장하는 배터리 소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벌 완성차 시장은 빠르게 친환경차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유럽 18개 국가의 전기차 판매 대수는 17만 6000대로 디젤차(16만대)를 넘어섰다. 이는 전년대비 6% 증가한 것으로 월 기준 사상 최대치다. 국내에서도 전기차 판매는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10만4200대로 2020년 4만6677대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양성운 기자 ysw@

미니스톱 품는 롯데... 퀵커머스 공격투자, 가맹점 사수 과제

롯데지주, 신세계 제치고 가장 높은 매각가 제시 인수시 계열사 시너지 효과 사측 “결정된 바 없어”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자율규약이 연장되면서 편의점 업계는 현재 계약 종료 된 타 가맹점주 유치, 타 브랜드사 인수 외에 몸집 불리기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미니스톱 편의점 모습. /뉴시스

롯데가 한국미니스톱 유력 인수자로 떠오르면서 롯데쇼핑 타 계열사와의 시너지 효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투자은행업계(IB)에 따르면 한국미니스톱 매각 주안사 삼일PwC가 이르면 이번 주중 우선 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번 본입찰에 참여한 롯데, 신세계, 넵스톤홀딩스 컨소시엄 중 롯데가 매각가 3000억 원을 제시하며 유력 인수자로 떠올랐다. 당초 확정으로 알려졌으나 롯데가 주는 공시를 통해 “현재까지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 공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이온그룹이 처음 미니스톱 매각에 나섰다 당시에도 롯데는 인수전에 참여했다. 그러나 당시 롯데가 제시한 매각가 4000억 원을 이온그룹이 거절하면서 불발됐다. 그러나 이번에 미니스톱이 시장에 나왔을 때 적정 매각가는 2000억 원대로 책정됐다. 3년여 만에

매각가가 절반 수준이 된 데에는 현 시점의 편의점 시장의 경쟁 구도에서의 성장 가능성, 미니스톱 점포 규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현재 미니스톱이 처한 상황을 볼 때 시장 추산 매각가 보다 훨씬 높게 부른 롯데가 인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롯데가 미니스톱 인수에 성공하면 확보한 점포를 바탕으로 비교적 늦게 합류한 퀵커머스 전쟁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쇼핑의 통합 온라인 쇼핑플랫폼 ‘롯데온’은 신선식품 2시간 내 배송 서비스를 올해 중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미 승기를 잡은 이커머스 기업들은 갖추지 못한 마트, 백화점 점포를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롯데쇼핑은 2시간 내 신속 배송을 위해 전국 대형 롯데마트를 중소형 물류센터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월 현재는 수도권 경기 일부 지역과 광주광역시 일부 지역 총 21개 점포만 바로 배송이 가능한 상태다. 여기에 기존 세븐일레븐 점포 1만 1173개에 미니스톱 점포 2620개를 마이크로 풀필먼트로 이용하면 더욱 효과적인 바로배송이 가능하다. 실제로 GS리테일은 GS25와 GS더프레시를 거점으로 활용해 퀵커머스 사업을 개진 중이다.

인수에 성공해서 넘을 산은 많다. 롯데가 미니스톱을 인수해도 계약이 만료되는 가맹점주들은 경쟁 브랜드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앞서 세븐일레븐은 로손과 바이더웨이를 인수했지만 실제 가맹점 증가 효과는 크지 않았다. 아울러 편의점 자율규약으로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자 각 사는 신규 출점이 아닌 계약 만료된 가맹점주를 끌어오고 이탈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전략으로 선회 중이다. 이 탓에 미니스톱 인수 후 가맹점주 이탈을 막기 위해 롯데는 막대한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롯데의 미니스톱 인수에 대해 “대표적인 규모의 경제 채널인 ‘편의점’ 사업 수익성 개선을 위한 의도도 있겠지만 우선 롯데가 최근 벌이고 있는 주력 사업들을 고려한다면 편의점 사업 자체에 대한 강력한 의지 보다는 이를 이용했을 때 시너지를 계산해 높은 제시가를 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공정위 “해운법 개정안에 공정거래법 적용” 해운업계 “공정위 제재 유감... 특단 조치”

장기간 담합 공정위가 최초로 제재 해수부와 실무차원 잠정 대안 마련



적용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알렸다”고 덧붙였다.

국회 계류중인 해운법 개정안에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 조항을 넣기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실무차원의 합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해운 담합에 공정거래법 적용을 막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으나, 공정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가 반발하면서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조성욱 위원장은(사진)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국내외 해운사 담합 제재를 발표한 뒤 이번 결정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번 사건은 해운협회의 반발 그리고 국회의 해운법 개정 추진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15년에 걸쳐 장기간 동안 이뤄진 정기선사들의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최초로 제재를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이 아닌 타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공동행위라고 해도 내용 상, 절차 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공동 행위에는 공정거래법을

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제도 개선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관계부처 의견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며 “작년 12월 사건처자 규칙을 개정했고, 이번 심의 시에 해수부 국장이 직접 참고인으로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해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말했다.

조성욱 위원장은(사진)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3개 국내외 해운사 담합 제재를 발표한 뒤 이번 결정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번 사건은 해운협회의 반발 그리고 국회의 해운법 개정 추진 등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15년에 걸쳐 장기간 동안 이뤄진 정기선사들의 운임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최초로 제재를 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조국장은 해수부와 의 마련한 합리적 대안에 대해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다만 큰 방향은 일단 공동행위를 해

운법상 허용하되, 신고 절차를 모두 거치고 화주단체와 정보교환을 통해 어느 정도 협의되도록 해, 이런 절차나 해운법에 규정된 내용을 지키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으로 ‘내용상 해운법에 근거하지 않은 공동회의를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겠다’는 식으로 실무자 수준에선 대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흥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의 일문일답.

-과징금 규모가 8000억원대에서 1000억원대 아래로 결론한 이유는.

“수입항로 같은 경우 이번 담합 행위로써 여러 가지 미치는 범위가 제한적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운업 특성과 이 사건 공동행위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과징금 규모가 결정됐다”

-장기간 담합이 이뤄진 구조적 원인은.

“정기선사 같은 경우는 담합을 하지 않으면 표현이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과벌적인 경쟁’이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다만 그 방법이 해운법의 규정이나 내용상 정당한 행위로 보이지 않아, 그런 쪽에서 약간 견제 차이가 있는 듯하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해양산업총연합회, 과징금 부과 반발



해양산업총연합회 공정위의 해운담합 과징금 부과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유토이미지

해양산업총연합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국내·외 컨테이너 해운업체들의 한국-동남아시아 노선 운임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공정위가 한일, 한중항로의 심사를 종결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해양·해운·항만·물류·조선업 등 해양 관련 54개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해양산업총연합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20여개 해외선사를 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심사보고서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공정위에 지적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해운업계에 과징금을 부과한 점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우리 업계는 해운법 제 29조상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는 점과 UNCTAD상 라이너코드에서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해외국들도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부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며 “공정위는 우리 업계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현실과는 왜곡된 내용으로 일관되게 주장해 해운업계가 부당하게 공동행위를 한 불법집단으로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도

야 국회의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운법에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해양수산부가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했다”며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고 덧붙였다.

총연합회는 “해양업계는 해운산업이 향후 공동행위를 정상적으로 수행해 우리 수출화물이 원활하게 수송될 수 있도록 해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기를 국회에 탄원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동남아항로와 같이 한일항로와 한중항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국적선사의 경쟁력은 더욱 약해지고 외국 대형선사만 유리하게 되고 그 피해는 우리나라 수출입 화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산업 특수성 고려 과징금 대폭 감액

>> 1번 ‘23개 선사 15년간’서 계속

해운법 제29조는 일정한 절차상·내용상 요건 하에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23개 선사들의 운임 담합은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나 화주단체와의 협의가

없었고, ‘공동행위 탈퇴의 부당한 제한 금지’, ‘부당한 운임인상으로 인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 금지’ 등 내용상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을 준수하도록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

정협)’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23개 선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당초 각 선사에 보낸 심사보고서 상 금액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액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수준은 부당이득 규모, 재무상황, 시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수입항로의 경우 담합으로 미치는 영향이 제

한적이어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독일 등 해외 선사 일부가 이번 제재에서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넘으면 처분을 하지 못하는 처분시효 개념이 있다”며 “해당 선사도 담합에 가담했으나 2011년 기준으로 이후 가담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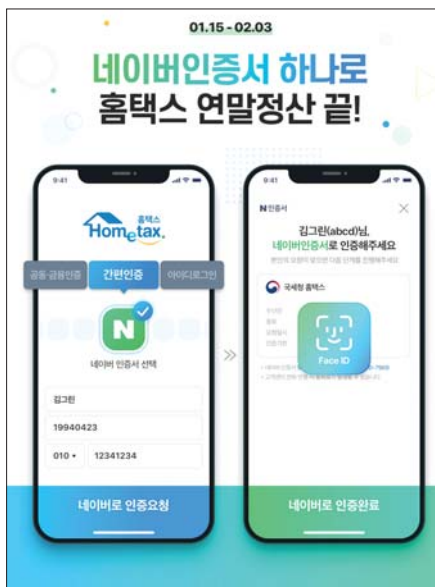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해운법이 허용

하는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 내용적으로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운임을 인상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절차상 화주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정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통상적인 공동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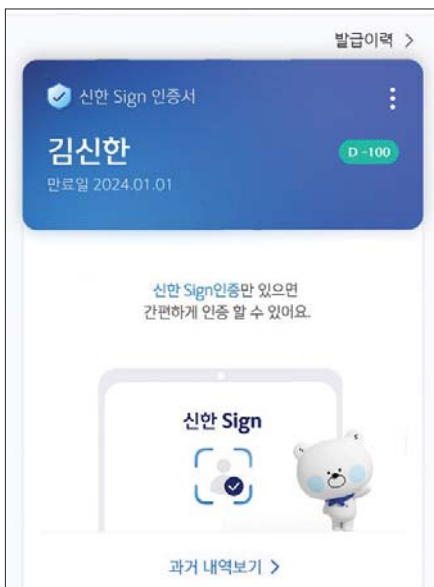
“13월 월급에 폴드3까지”... 이통사·은행·포털 인증경쟁 치열

〈갤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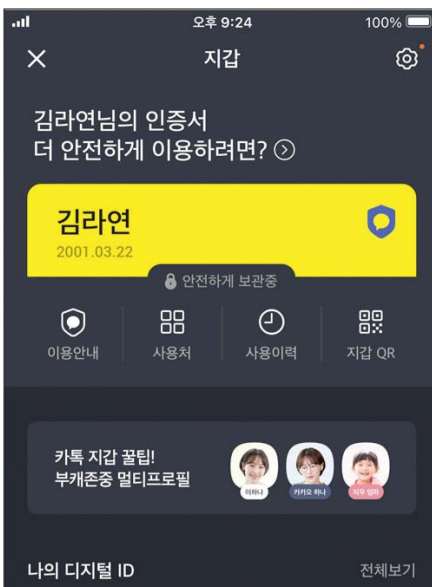
민간인증서 시장, 고객확보 분주
네이버 광범위한 당첨 이벤트
 최대 100만원 페이포인트 지급
신한 행운의 타이거를 잡아라
 갤럭시Z 플립3 등 경품 추첨
PASS 경품 추첨 이벤트
 아이폰·백화점 상품권 등 제공



네이버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PASS인증서

이동통신사·포털·은행 등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민간인증서 시장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 시작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카카오, 통신3사의 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등 기존 5개 사업자가 참여해 네이와 올해는 네이버와 신한은행이 이 시장에 합류했다. 이들 기업은 각종 이벤트에 나서면서 고객 확보에 나섰다.

연말정산에 민간인증서가 도입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2번째로, 지난해는 민간인증서를 PC 홈택스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민간인증서 시장에서는 이통3사의 PASS가 3550만건의 이용건수를 기록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어 카카오 3300만건, 네이버 2700만건을 비롯 금융인증서 1000만건, KB 모바일인증서가 960만건 등을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와 신한은행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민간인증서를 제공하는 기념으로 고객 확보를 위한 이벤트에 나섰다.

많은 제휴처를 보유해 편의성을 자랑하는 네이버 인증서가 2월 3일까지 진행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돼

네이버 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자료 제공 동의 신청, 간소화 자료 조회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네이버는 자사의 인증서를 사용한 사람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당첨 이벤트를 개최한다. 14일까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네이버 인증서 첫 발급한 이용자와 15일~2월 3일 연말정산 기간 동안 홈택스에서 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각각 페이포인트 100원부터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네이버 인증서는 2700만명의 사용자와 200개 이상의 제휴처를 자랑하며 지난 10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건강보험공단, 정부24 등 총 55개 정부 공공기관 사이트 간편인증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정식 오픈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도 압도적인 도입률을 자랑하는데, 40개가 넘는 금융, 카드, 보험, 핀테크 등의 선택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국제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신한인증서가 적용된 기념으

로 관련 이벤트를 다음달 24일까지 진행한다.

신한 인증서는 신한 솔(SOL)에서 10초만에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3년 마다 갱신하는 번거로움 없이 생체 인증 및 PIN 번호 입력만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행운의 타이거를 잡아라’ 이벤트를 통해 국제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신한인증서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LG 스탠바이미, 아이폰13프로, 갤럭시Z 플립3, 갤럭시Z 폴드3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NHN페이코도 연말정산을 맞아 페이코 인증서 신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31일까지 인증서를 발급 받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이벤트에 자동 참여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21명에게는 21만원을, 2021명에게는 2100원을 페이코 포인트로 지급한다.

페이코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가 별도의 저장소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페이코 앱 내 한번 발급해두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인증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2년으로 매년 갱신할 필요가 없다. 우선 페이코 앱에서 페이코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정부24와 국제청 홈택스에서, ‘간편서명 로그인’ 탭에서 페이코를 선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해 인증요청을 클릭한 뒤, 페이코 앱으로 이동하면 본인 인증을 완료할 수 있다.

카카오는 2020년 말 행정안전부 공공 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 시범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카카오 인증서 사용처를 수십 곳의 공공사이트까지 확대했다.

카카오 인증서는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서 약관 동의 및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만들 수 있으며,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 없이 간단한 비밀번호 입력이나 생체 인증만으로 유효기간 2년 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통 3사의 PASS 인증서는 간편한 사용성과 통신정보 조항을 통한 강력한 보안성을 강점으로, 국제청 홈택스·정부24·백신 사전예약 시스템 등 정부 사이트와 현대카드·미래에셋대우·교보생명 등 다양한 제휴사에서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PASS 앱을 통해 약관동의와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인 15일부터 내달 19일까지 PASS 인증서로 국제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아이폰 12 프로 맥스, 아이패드 에어4, 백화점 상품권 등 푸짐한 선물을 제공한다.

한편, 토스 인증서를 운영 중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연말정산 인증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토스 플랫폼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뉴욕증시 자진 상장폐지 ‘디디추싱’ 中 규제에 홍콩 이전 상장 ‘가시밭길’

차이나 뉴스&리포트
 당국 만류에도 해외상장 고집
 고강도 보안 조사에 백기 투항
 정부 조사 결과·앱 재등록 관련



디디추싱 직원들이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이하 디디)이 사상 초유의 자진 상장폐지라는 백기를 들었지만 홍콩으로의 이전 상장 역시 녹록치 않다. 중국 정부는 아직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고, 퇴출됐던 앱의 재등록 여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디디는 상장 폐지에 대해 홍콩 증권거래소와 비공식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일단 2분기 상장이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디디는 지난해 12월 뉴욕 증시에서의 상장 폐지를 공식화하고, 홍콩 증시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유례없는 자진 상장폐지의 이유는 중국 당국의 규제 압박이다.

디디는 지난 6월 30일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44억 달러에 달하는 자

디디에 대한 고강도 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디디 경영진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FT 중문판에 “이번 조사에서 디디가 민감한 데이터를 미국에 넘겼거나 국가 안보에 해가 됐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실질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다”면서도 “정부가 보여주기 식으로 디디의 잘못을 지적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디디는 정부를 달래기 위해 중신(CITIC) 등 국영기업 등을 투자자로 유치하는 방안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합의를 보진 못했다.

홍콩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디디가 홍콩에 상장하는데 있어 정부 조사의 공식적인 결론과 앱의 재등록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의심받는 것은 물론 거래소의 상장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적도 부진하다. 디디의 작년 3분기 매출은 427억 위안으로 1.7% 감소했으며, 304억위안 손실을 기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증권업계 “청약증거금 100兆 안팎 전망”

≫ 1면 ‘LG엔솔 청약 첫날...’서 계속

하이투자증권 경쟁률은 17.52대 1이다. 청약건수는 24만906건이고 예상 균등 배정 수량은 4.48주이다. 하나금융투자 경쟁률은 56.18대 1이다. 청약건수는 50만482건이고 예상 균등 배정 수량은 2.19주이다. 마지막으로 신영증권 경쟁률은 11.45대 1을 기록했으며 청약 건수는 27만941건이고 예상 균등 배정 수량은 3주다

이날 청약 시작 한 시간 만인 오전 11시부터 청약 증거금은 11조원을 넘어섰다. 앞서 카카오뱅크의 공모주 일반 청약 첫날 오전 11시 기준 증권사 5곳에 모인 청약 증거금이 총 3조4404억원 규모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4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증권사별 배정 물량은 KB증권이 486만9792주(45.8%)로 가장 많다.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각각 243만4896주로 22.9% 비중이다. 미래에셋증권과 하나금융투자, 신영증권, 하이투자증권은 각각 22만1354주로 2.1% 수준이다.

최근 한달 사이 신규계좌 개설 건수 증가율은 KB증권이 195.48%, 신한금융투자가 91.04%, 대신증권이

332.75%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균등배정으로 1주도 받지 못하는 청약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증권가는 당초 이틀 간 250만명이 참여해 평균 균등배정수 2~3주를 받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첫날 오전에만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특히 최소 증거금 150만원을 투자해 2주를 배정받았다고 가정할 때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초가가 형성된 뒤 상한가 기록)을 기록할 경우 96만원(78만원×2=156만원-60만원)의 차익을 얻는다.

증권업계에서는 LG엔솔이 기차용 배터리 시장 2위 기업인 만큼 청약증거금이 1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일반 공모 청약증거금 규모에서 81조원으로 1위를 차지한 SK아이이테크놀로지를 넘어서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중복청약이 불가능해지며 가족 계좌를 동원한 청약자들도 생겨났다”며 “이대로라면 400만명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일반 청약자에게 전체 공모 주식의 25~30%인 1062만5000~1275만주를 배정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정부 지원 빈약”... 대선후보, 소상공인 마음 달래기 나서

李·尹·金 후보, 신년인사회 참석
“추경 14조도 적다” 이구동성
김부겸 총리 “소상공인 희생 보답”

주요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 표심을 잡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연 신년인사회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축전을 보냈다. 김 총리는 축전을 통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고통과 희생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반드시 보답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선 후보들은 이구동성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기존 지원책이 빈약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정부가 방역 책임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떠넘겼다. 선



(왼쪽에서 3번째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진국에 비해 지원도 미약했다.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앞으론) ‘선지원 후정산’ 방식이 맞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추경 14조원도 적다. 여야가 증액을 합의하면 정부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의 부담을 소상공인들이 떠안게 돼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주먹구구식 방역 대책을 바로 잡아야 한다. 빠른 시간 내에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 1차로 50조원 예산이 필요하다. 한국형 PPP제도를 도입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도 낮춰야 한다. 소상공인 특화 공제제도,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대출금융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는 “지금 정부(가 제시한) 추경 14조원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국가 예산 중 재량지출 부문을 구조조정해 1차로 30조원까지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 그것도 부족하다면 국채를 발행해 2차로 추경 예산을 확보하면 된다. 다만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내년 예산 증액분으로 (추가 발행한) 국채를 갚아야 한다. 쓸때는 써야 한다”고 전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당내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

오세희 소상공인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선 후보들께서도 50조, 100조 직접 지원을 언급했고 완전한 손실보상, 피해 업체 전원 보상, 선지원 보상이 약속하셨다. 소상공인 50조 지원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안에서 그 절반인 25조 이상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부채 만기 재연장 ▲부채 탕감을 위한 한국형 PPP제

도 도입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대형 식자재마트 등 확장막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등도 요청했다.

오 회장은 “연합회가 소상공인의 회복력, 자생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설립 등도 필요하다”면서 “정책연구소, 복지지원센터 등 소상공인 통합지원의 구심역할을 할 소상공인 전용 복지회관 건립도 절실한 만큼 대선 후보들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

주무부처 수장인 권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국가경제활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바탕에는 소상공인들의 눈물겨운 고통이 있었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여기에 대해 호응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동반자로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135조 투입해 300만개 일자리 창출... 유승민 공약도 수용

두 번째 순방지 찾은 사우디 왕세자와 회담

李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 발표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
‘K-비전펀드’ 50조 규모 조성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135조 원을 투입해 300만개 일자리 창출 등을 담은 일자리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와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자리경제를 활성화시켜 국민이 행복한 경제성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18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일자리가 곧 경제이자, 일자리가 곧 복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의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은 ▲일자리 창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법제·조직 개편 ▲기업 일자리 성장 ▲혁신형 지역 일자리 ▲청년희망 일자리 등을 담았고, 이를 위한 정책 기조는 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업·지역의 일자리 성장전략, 경제·사회 전반의 통합적인 접근, 선제적이고 정의로운 전환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

이 후보는 먼저 “디지털·에너지·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신속하고 선

도적인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혁신형 일자리를 늘리는데 13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비, 지방비, 민간자금을 포함한 135조원을 조성해 디지털 인프라 조성,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초기

·조연결 신산업 육성 등을 비롯해 탈탄소·녹색경제 전환을 통해 신산업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그린에너지·에코모빌리티 산업 혁신, 자원순환 신산업 육성 등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소속 유승민 전 의원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실사구시 입장에서 과감히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돌봄, 간병, 보육의 사회공공보조 분야 일자리를 늘리겠다”며 “사회서비스 종사자 교육·훈련 강화와 근무환경, 처우를 개선해 사회적 경제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아랍에미리트(UAE) 실무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각) 오전 UAE 두 번째 순방지인 사우디아라비아로 향한다. 한국 대통령이 사우디에 방문하는 것은 7년 만으로, 이번 순방은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사우디 왕세자 초청에 따라 성사됐다.

사우디는 한국과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한 중요 협력 대상으로 꼽힌다. 중동 지역에서 유일한 G20(주요 20개국) 회원이자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고, 해외건설 누적 수주 1위 국가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1박 2일간 사우디 공식 방문 일정에서 에너지·인프라 건설 분야 중심으로 이뤄진 기존 협력 관계를 수소·방산·교육·과학기술(AI)·보건의료 등 미래 분야로 넓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할 계획이다. 한국수출입은행도 한국 기업의 사우디 진출 및 프로젝트 수주 기반 마련 차원에서 문 대통령 사우디 순방 기간 사우디 국영회사와 ‘기본여성약정 주요조건합의서’ 체결을 예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살만 사우디 왕세자와 공식 회담 및 공식 오찬을 시작으로 양국 간 협력 분야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사우디는 모하메드 왕세자 주도로 ‘포스트 오일’ 시대 脫(탈)석유 산업 다변화 국가개발전략인 ‘비전2030’ 추진 과정에서 한국과 수소·디지털 등 신산업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우디가 선정한 ‘비전2030’ 중점 협력국 8개국에 포함된 만큼, 양국은 지난 2017년 이후 ‘한-사우디 비전2030 위원회’를 두 차례 열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논의도 지속해 오고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대선후보, 사회복지사 만나 “처우 개선” 한 목소리

李 “공공만이라도 불안정 대가 지급”
尹 “천차만별 처우 시스템 불공정”

사회복지사들이 공익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정규직·비정규직 여부에 따라 임금 및 복지의 차별로 인한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됨에 따라 여야 대선 후보들은 사회복지사의 임금과 처우 수준을 끌어올리고 근로조건을 향상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다수의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동과 장애인, 노인 등 사회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5년 차 사회복지사의 임금은 가이드라인 대비 78~97% 수준이고, 10년 차의 경우엔 최하 57%로 나타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첫 번째로 지난해 12월 28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열린 청년사회복지사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약자일수록 보수가 적은 희한한 사회”라며 “공공에서만이라도 최소한 불안정에 대한 대가를 추가 지급하고, 동일한 일에는 동일한 대가를 지급해서 어려운 일을 하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에

열린 간담회를 통해 소속 기관마다 다른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장 중시하는 부분이다. 사회복지사들이 공공기관 등에 소속해서 일하기 때문에 기관마다 일은 똑같지만, 기관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인 처우 시스템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에 사회복지사 공약으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도입 ▲사회복지종사자 안전 확보 및 인권보호 ▲사회복지연수원 설치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양성시설의 개별 인건비 가이드라인들을 일원화하고, 이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전날(17일)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단일임금 체계, 호봉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의 역할과 위상이 근본적으로 재정립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단일임금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지난 7일 사회복지사의 임금 수준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시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사회복지사의 대우가 서울시가 제일 좋을 텐데, 서울시 기준으로 임금을 상향 단일화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근로 조건을 향상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손보협회, 올 핵심과제 소비자 방점... “안전망 확충 최선”

정지원 손보협회장 도전과제 발표 소비자 생활편리미엄·보호 등 선정 디지털 보험생태계 구축 박차



정지원 손보협회장

정지원 손보협회장이 올해 핵심 과제로 ▲소비자생활편리미엄(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결합한 용어) ▲소비자 안전망 확충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안착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 조성 등을 꼽았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18일 신년 사업 계획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소비자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2022년도 손보협회 도전과제와 업무추진 방향을 이 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최근 금융·비금융 산업 간 빅블러 현상,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확산, 사회적 책임 강화 등으로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고 미래 환경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든든한 안전망 제공이라는 손보 본연의 가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대내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손보협회는 소비자를 화두로 ▲소비자생활편리미엄 ▲소비자 안전망 확충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안착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 조성 등을 핵

심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소비자생활에 편리미를 더하는 디지털 보험생태계 구축한다.

대표적으로 디지털 혁신으로 차별화된 손보 ‘마이(My) 생활·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비금융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시대, 손보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선 디지털 경쟁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손보협회는 이를 통해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차별화된 가치 창출을 통해 손보업계만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가 보험가입·청구 등에 필요한 행정서류도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중 정부에서는 본인의 공공 행정정보를 제3자 및 본인에게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행

구분	서비스	활용데이터
금융	·자산관리, 보험보장분석, 맞춤보험 추천 예) 항공권 구매이력→여행보험 추천, 운동시설 결재이력→건강보험 추천	금융마이데이터 (상품가입정보, 구매이력 등)
반려동물	·반려동물 토탈케어 서비스 예) 동물병원, 애견미용샵 예약, 반려동물 용품 구입 등	금융마이데이터 (애견용품 구매정보)
건강·요양	·맞춤형 헬스케어·요양서비스 제공 예) 당뇨환자 식단추천·음식배달, 요양시설 예약안내 서비스 등	의료마이데이터 (건강검진내역 등)
안전	·기업고객(중소상공인) 맞춤 정보·서비스 제공 ·주택(화재, 종합) 보험 연계 주택관리 서비스 예) 소상공인 의무보험 가입 안내·교육/주택 수리, 공동주택 관리지원 등	공공마이데이터 (사업자등록증 등)
자동차	·자동차 소비자 맞춤 서비스 제공 예) 주유소·주차장·세차장·차량관리 등 서비스 연계	공공마이데이터 (자동차등록번호 등)

자료/손해보험협회

정안전부·신용정보원 등과 협업해 손보사에서 활용 가능한 공공 정보의 범위를 건의·확정하고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 체계를 마련한다.

3900만 소비자가 가입한 실손보험 보험금청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실손 청구전산화 도입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헬스케어 및 고령화시대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손보협회는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을 건의한다. 요양시설 서비스 진출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인다.

둘째로 사회·환경 뉴노멀 트렌드에 부응하는 소비자 안전망도 확충한다.

▲탄소중립 등 친환경 에너지 전환시대에 발맞춘 보험역할 강화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장 강화 ▲취약 부문에 대한 보험의 민간 안전망 역할 강화 ▲기상이변에 따른 기후리스크 보장 확대 등을 통해서다.

소비자보호 패러다임 안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도 강조했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 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강화된 업무 프로세스 및 규제에 영업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협회는 금소법 기반 소비자보호중심 경영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원해 회사와 소비자 간 신뢰를 굳건히 지켜나간다는 전략이다.

빅테크·보험대리점(GA) 채널의 합

리적 규제체계도 주문했다. 플랫폼 기반 빅테크 기업의 보험시장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보험사와의 불공정 경쟁, 플랫폼 자회사를 통한 우회 영업 등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다. 법령 개정과 내부통제기준 정비 등을 통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과 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한다.

끝으로 올바른 보험소비 문화조성을 통한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 강화에 힘을 전락이다.

특히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에 대한 구조 개선에 대해 당부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급증하는 과잉한 방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한의원 상급병실 등 문제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진료수가 기준 마련도 건의한다. 정비요금 결정에 대한 합리적인 참고 기준 마련 및 경미사고시 복원수리 기준 법제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논의할 예정이다.

정지원 손보협회장은 “보험은 미래 위험에 대한 장기간 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라며 “(올해 추진하는 사업과제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의 가치를 실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비자와 함께하는 든든한 손해보험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MG손보 건전성 악화... 대표 교체설 솔솔

2020년 1000억 적자 전환 동기간 타사 대부분 호실적 영업총괄 오승원 하마평



MG손해보험 전경. /MG손해보험

박윤식 MG손해보험 대표이사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다. 다른 손보사와 비교해 실적은 매년 줄어 드는 데다 소비자피해는 늘고 있어서다. 현 오승원 MG손보 영업총괄 사장이 새롭게 MG손보를 이끌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적 얼마나 줄었나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MG손보의 지난 2020년 말 기준 영업손실은 1158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77억원의 영업이익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도 1008억원에 달했다.

지난 2020년 국내 주요 손보사가 대부분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간 것과는 다른 행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되며 대부분의 손보사는 호실적을 기록했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RBC)비율도 하

해 53.9% 늘었다.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건수를 나타내는 환산건수는 11.93건으로 전년(8.08건)에 비해 47.6% 증가했다. 통상 환산건수는 보유계약이 많은 대형 보험사들의 민원건수 규모도 높다. MG손보의 경우 보유계약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다른 보험사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오승원 MG손보 영업총괄 사장이 박 대표이사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선임된 오 사장은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메트라이프생명, 푸르덴셜생명과 DGB생명 등을 거쳤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박윤식 대표이사(MG손보의 최대주주인)JC 파트너스 측 오승원 사장 간 (임기를 놓고)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박 대표가 임기 중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라고 말했다.

MG손보 관계자는 “아직 확인된 것이 없다. 임원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주주의 롤”이라고 선을 그었다. /백지연 기자

신한금융 블록체인·NFT 기업에 50억 투자

SI펀드 통해 ‘블록오디세이’에 투자

신한금융그룹이 국내 금융사 최초의 디지털 전략적 투자(SI) 펀드인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를 통해 블록체인·NFT 기술 기업인 ‘블록오디세이’에 50억원 투자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4월 그룹의 디지털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유망 벤처·스타트업 및 예비유니콘 기업에게 투자할 목적으로 총 3000억원 규모의 디지털 전략적 투자(SI)펀드 ‘원신한 커넥트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펀드를 조성했다.

신한금융은 디지털 전략적 투자(SI)펀드를 ▲미래 시장 선점 ▲비금융 플랫폼 연계를 통한 그룹 T&T(Traffic & Transaction) 확대 ▲그룹사 핵심

디지털 사업 활성화 등 3가지 전략적 지향점을 바탕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번 투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12개 기업에 총 1780억원을 투자를 진행했으며 펀드 운용(GP)은 신한캐피탈에서 담당하고 있다.

블록체인·NFT 기반 기술기업 블랙오디세이는 최근 신한카드와 함께 금융권 최초의 NFT발급·관리 서비스인 ‘My NFT’를 ‘신한 pLay’에 런칭했다. 또한 신한금융의 SI 펀드가 투자한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와의 협업을 통해 블록체인 및 NFT 기반 상품 인증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투자는 급성장 중인 블록체인·NFT 시장 공략을 위한 파트너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신한銀 “비대면으로 주담대 신청하세요”

내달 28일까지 이벤트 진행

신한은행이 새해를 맞아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이벤트를 오는 2월 28일까지 실시한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택을 취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택구입자금, 타행대환자금,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신청은 신한은행 모바일 앱 ‘솔(SOL)’을 통해 하면 된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3월 비대면 담보대출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뒤 같은해 9월 완전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무방문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특히 신한은행은 고객의 비대면 대출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주택구입목적 및 타행대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은 고객의 의사에 따라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은행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대출을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IBK기업銀-동반위, ESG 우수 中 支援

IBK기업은행은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대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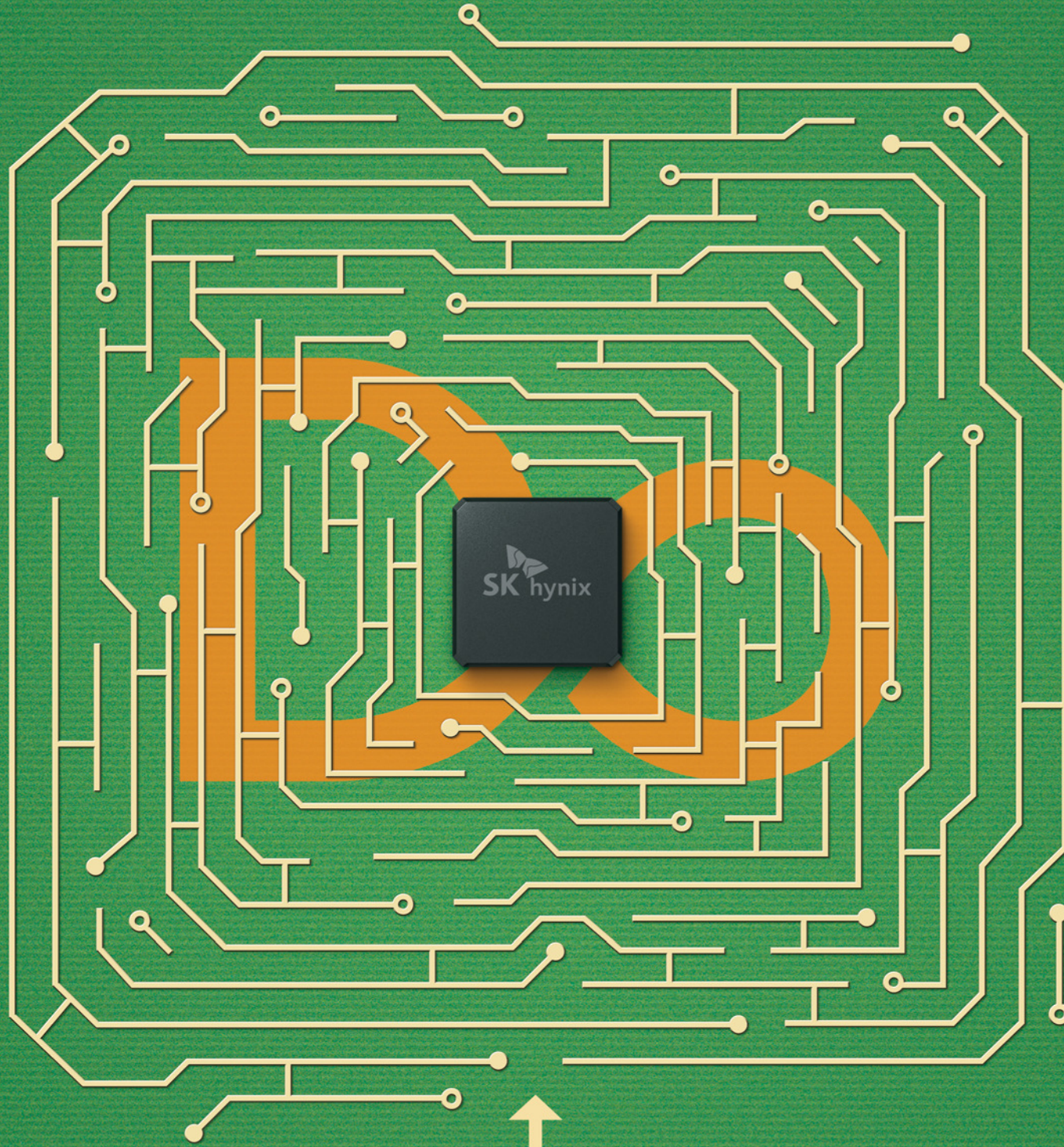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조기 정착을 위한 ESG 관련 교육과 컨설팅 지원, ESG 우수 중소기업 대상 대출 지원 및 우대금리 적용 등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ESG 도입

확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3년간 최대 1.0%p 감면하고 ESG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금융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tsy2665@

미로를 통과해 더 큰 미래와 만나보세요



하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에서 출발해
더 좋은 반도체에 도전하고
더 많은 기업들과 상생하고
더 나은 내일의 길을 찾는 끊임없는 실행
SK하이닉스의 가장 큰 힘입니다

We Do Technology | SK hynix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픽·배터리 다 잡았다 “최상의 모바일게임 경험 선사”

모바일 AP 엑시노스 2200 출시



삼성전자가 3년여만에 AMD와 힘을 합친 결실을 내놨다. 최첨단 공정에 단점으로 지적됐던 GPU 성능을 개선하면서 차기 갤럭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다만 출시 지연에 따른 성능이나 수율 문제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상태다.

삼성전자는 18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 2200을 출시했다. 엑시노스 2200은 CPU와 GPU 및 뉴럴 프로세스 유닛(NPU),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서(ISP) 등을 탑재한 통합칩(SoC) 형식으로 개발됐다.

◆ AMD와 만든 ‘엑스클립스’ GPU

가장 큰 변화는 GPU다. 2019년 AMD와 저전력·고성능 그래픽 분야 협력을 약속한 이후 처음으로 AMD와 공동 개발한 ‘엑스클립스’를 탑재했다. 종전까지는 Arm의 말리를 사용했지만 성능이나 발열 등에서 비판이 많았던 터, GPU 시장 강자인 AMD 기술을 반영하면서 대대적인 성능 개선이 기대된다.

엑스클립스는 AMD의 최신 그래픽 아키텍처인 RDNA2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모바일 기기에서 업계 최고 수준 게임 그래픽 성능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모바일AP 최초로 물체에 투과되거나 굴절, 반사되는 빛을 추적해 사물을 실감나게 표현하는 하드웨어 기반 레이 트레이싱 기능도 탑재해 게임을 더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영상 음영을 선택적으로 조절해 GPU 효율을 높이는 ‘가변 레이트 셰이딩’도 적용했다. 영상의 밝기와 움직임 등을 분석해 고성능·고화질 장면에서 최적화된 렌더링을 제공한다.

아울러 전력 효율을 최적화하는 자체



엑시노스 2200 /삼성전자

AMD 공동개발 ‘엑스클립스’ 탑재 레이 트레이싱으로 실감나는 사물

‘AMIGO’로 배터리 소모 최소화 Armv9 아키텍처로 머신러닝 강화

갤S22에 엑시노스 2200과 함께 퀄컴 스냅드래곤8 1세대 탑재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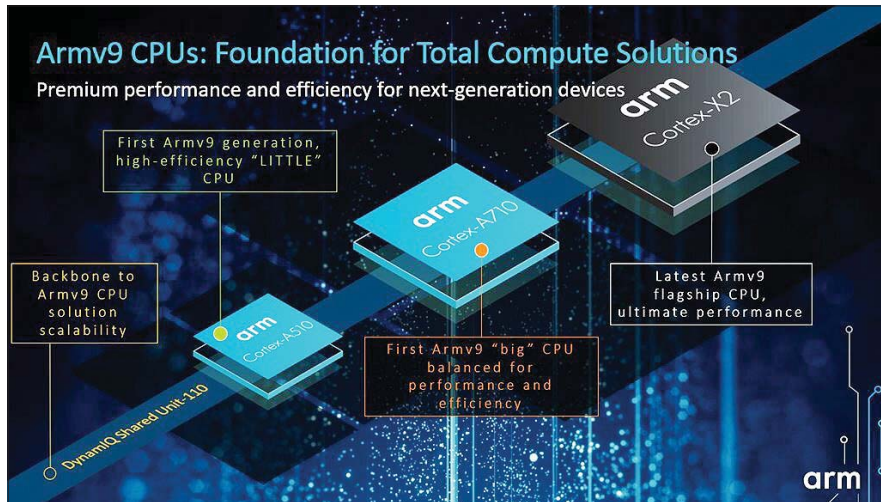
솔루션 ‘AMIGO’로 배터리 소모도 최소화했다.

AMD 라데온 테크놀로지 그룹 수석 부사장 데이비드 왕은 “AMD는 ‘RDNA 2’ 그래픽 아키텍처를 통해 PC, 노트북, 게임 콘솔, 자동차에 이어 스마트폰에까지 최신 저전력 그래픽 솔루션을 제공하게 됐다”며 “엑스클립스는 향후 엑시노스 프로세서에 탑재 예정인 다양한 AMD RDNA 그래픽 솔루션 시리즈의 첫 협업 사례로, 두 회사의 기술 협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최상의 게임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Arm 최신 아키텍처로 연산 성능 제고

아키텍처는 Arm의 최신 기술인 Armv9을 기반으로 했다. 단순 연산뿐 아니라 NPU와 머신 러닝 기능도 높였다. 특히 NPU 연산 성능을 전작보다 2배 이상 높여 ‘온 디바이스 AI’ 기능도 강화됐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CPU는 코어텍스-X2 1개와 코어텍스-A710 3개, 코어텍스-A510 4개 등



Arm9 아키텍처 구성 /Arm

‘트라이 클러스터’ 구조의 옥타코어로 설계했다.

Arm IP 프로젝트 그룹 대표 르네 하스는 “미래의 디지털 경험을 위해서는 새로운 차원의 성능, 보안, 효율성이 요구된다”며, “새로운 Armv9 CPU 코어를 탑재한 첫 프로세서 중 하나인 삼성 ‘엑시노스 2200’은 목적 기반 컴퓨팅과 특화된 프로세싱으로 구현되는 새로운 모바일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Arm의 토탈 컴퓨트 전략, 메모리 태깅 익스텐션과 같은 주요 보안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G 모뎀은 3GPP 릴리즈 16 규격으로, 저주파대역(서브-6, Sub-6)과 초고주파대역(mmWave)까지 전 세계 5G 주요 주파수를 모두 지원한다.

ISP는 최대 2억화소까지 처리할 수 있다. 최대 7개 이미지센서를 지원하고, 4개 이미지센서에서 입력하는 영상과 이미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성능을 갖췄다. 여기에 NPU를 연동하면 배경에 포함된 다양한 사물, 환경, 인물 등을 인식해 최적의 색과 명암 노출 조절을 통해 전문 사진가 수준의 사진 촬영을 지원할 수 있다.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장 박용인 사장은 “‘엑시노스 2200’은 최첨단 4나노 EUV 공정, 최신 모바일 기술, 차세대 GPU, NPU(Neural Processing

Unit)가 적용된 제품으로 게임, 영상처리, AI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차원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모바일AP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전략 제품을 지속 출시하며 시스템 반도체 전반에 걸쳐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갤럭시S22 탑재될까

엑시노스 2200은 공개 전부터 차기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S22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갤럭시S21이 전작 대비 성능을 크게 개선하지 못해 엑시노스2200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갤럭시S22는 엑시노스2200과 함께 퀄컴 스냅드래곤8 1세대를 함께 탑재할 예정이다. 스냅드래곤8 역시 Armv9 아키텍처를 사용하지만, GPU와 ISP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삼성전

자는 그동안 국내와 유럽, 남미에서는 엑시노스를, 미국 등 지역에는 퀄컴 스냅드래곤을 탑재한 모델을 판매해 왔다.

문제는 엑시노스2200이 충분히 완성됐는지 여부다. 당초 삼성전자는 엑시노스2200을 지난 주에 공개하기로 했다 가 갑작스럽게 취소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엑시노스2200 성능과 수율에 문제가 생겼다는 추측이 확대됐다. 갤럭시S22에 엑시노스2200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실제로 일부 외신과 틱터는 엑시노스2200과 스냅드래곤8 Gen1을 비교하는 벤치마크 결과를 공개하며 엑시노스2200 성능이 기대만큼 높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클럭 성능과 발열 등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결국 삼성전자가 ‘깜짝’ 발표를 단행하면서 엑시노스2200 출시 불발설은 진화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도 성능 문제가 아니라 고객사 요청으로 발표를 미룬 것뿐이라는 설명, 벤치마크 결과도 루머에 불과해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삼성전자가 엑시노스2200 문제의 핵심이었던 CPU 클럭을 밝히지는 않아 여전히 성능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삼성전자 4나노 공정 수율에 대한 논란으로 엑시노스2200을 적용한 갤럭시S22를 일부 지역에만 적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이어지고 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레조고디지털이 예상한 갤럭시S22 울트라. /레조고디지털

LG화학, 충남 당진에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 짓는다



초임계 열분해유 공장 2024년 준공 연산 2만t 규모... 화학적 재활용 적용

LG화학이 플라스틱 순환 경제 구축을 위한 화학적 재활용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탄소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지속 전환하기 위해서다.

LG화학은 2024년 1분기까지 충남 당진에 국내 최초의 초임계 열분해유 공장을 연산 2만톤 규모로 건설한다고 18일 밝혔다. 열분해유는 사용된 플라스틱에서 추출 가능한 재생 연료로 새로운 플라스틱 생산을 위한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동안 쉽게 재활용 되지 못하고 버려진 과자 봉지, 즉석밥 비닐

뚜껑, 용기 등 복합재질의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을 열분해시킨 뒤 가장 초기 원료인 납사를 추출해 다시 석유화학 공정에 넣는 것이다.

이 공장에는 고온·고압의 초임계 수증기로 혼합된 폐플라스틱을 분해시키는 화학적 재활용 기술이 적용된다. 초임계 수증기란 온도와 압력이 물의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에서 생성되는 특수 열원이다. 액체의 용해성과 기체의 확산성을 모두 가지게 돼 특정 물질을 추출하는데 유용하다.

또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는 기술과 달리 열분해 과정에서 탄소덩어리(그을림) 생성을 억제해 별도의 보수 과정 없이 연속 운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약 10톤의 비닐·플라스틱 투입 시 8톤 이상의 열분해유를 만들 수 있어 생산성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이다. 나머지 2톤 가량의 부생 가스는 초임계 수증기 제조 등 공장

운전을 위한 에너지로 재사용된다.

이를 위해 LG화학은 초임계 열분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의 무라 테크놀로지과 협업한다. LG화학은 지난해 10월 화학적 재활용 분야의 밸류 체인 강화를 위해 무라에 지분 투자도 진행했다.

최근에는 무라의 기술 판권을 갖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엔지니어링·서비스 기업인 KBR과 기술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공장 기본 설계를 위한 공정 라이선스 및 엔지니어링 계약을 체결했다. 열분해유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LG화학은 실질적인 제품 검증 및 향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증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장조사업체 등에 따르면 전세계 화학적 재활용 시장은 폐플라스틱에서 추출 가능한 열분해유 기준 2020년 70만톤 규모에서 2030년 330만톤 규모로 연평

균 1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열분해를 비롯한 화학적 재활용 기술을 자체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관련 재활용 기술 및 원재료를 보유한 연구기관,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국래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은 “지속가능한 기술·공정 선도 기업들과 협력해 화학적 재활용 설비를 내재화하고 플라스틱 순환 경제 구축을 가속화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친환경 소재·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관련된 신규 시장을 적극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문 기자 ysw@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CBAM, 韓 기업에 부담” 전경련, EU에 우려 제기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1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EU 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를 열어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국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새로운 무역장벽이나 대EU 수출기업들에게 추가적 부담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므로 향후 입법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다. /양성문 기자

북유럽 감성에 408마력... 1회 충전으로 서울~부산 '거뜰'

폴스타, '폴스타2' 출시

LG엔솔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유로 앤캡 자동차 안전도 최고등급
전기차업계 최고수준 보증 지원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가 18일 '폴스타2'를 국내 출시했다. 폴스타는 볼보자동차와 중국 지리 홀딩이 설립한 전기차 전문 브랜드다.

폴스타 2는 브랜드 최초의 100% 순수 전기차이다. 폴스타가 재정의한 프리미엄 전기차의 스펙트럼을 확장함은 물론, 전기 모빌리티의 매력을 알려 지속가능한 시대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개발됐다. 전 세계 19개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비롯해 디자인과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분야의 어워드에서 50회 이상 수상하며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폴스타는 단순함과 절제를 추구하는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지향한다. 폴스타2에 처음 적용된 프레임 없는 사이드미러 크기는 기존 사이드미러보다 30% 줄었다. 차량과 같은 색상의 무광 엠블럼도 깔끔한 디자인을 보여준다.



스웨덴 전기자동차 브랜드 폴스타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웨이브 아트센터에서 폴스타2를 공개했다.



/손진영기자 son@

내부는 비건 소재와 재생 플라스틱을 활용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가죽보다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게 특징이다.

폴스타2는 또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전기차 전용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했다. 인공지능(AI) 플랫폼 누구와 뮤직 애플리케이션(앱) 플로 등도 포함됐다.

폴스타2는 유로 앤캡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배터리 팩으로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해 배터리와 탑승객을 모두 보호한다.

앞 좌석 에어백은 외부 충격 시 탑승자 간 충돌을 방지한다.

폴스타2는 롱레인지 싱글모터와 듀얼모터 등 2가지다. 히트펌프가 기본으로 적용되고, LG에너지솔루션의 78KW 리튬-이온 배터리가 탑재된다.

롱레인지 듀얼모터는 동급 최고 수준의 408마력을 바탕으로 전기차 특유의 다이내믹한 운전을 선사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로 가속하는데 4.7초면 된다. 1회 충전시 주행거리는 334km다. 롱레인지 싱글모터는 231마력에 1회 충전 시 최대 417km를 갈 수 있다.

폴스타2 롱레인지 싱글모터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 5490만원, 듀얼모터는 5790만원이다. 패키지 옵션으로는 주행을 지원해주는 '파일럿 팩'이 350만원, 차량 가치를 더해주는 '플러스팩'이 450만원이다.

서울과 스페이스 경기, 스페이스 부산 등에서 24일부터 폴스타2를 시승할 수 있다. 차량 인도는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함중성 폴스타코리아 대표는 "스웨덴 본사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세계 어느 시장보다 매력적인 가격과 상품성을 갖춘 폴스타2를 선보일 수 있었다"라

며 "폴스타2를 통해 프리미엄 전기차의 스펙트럼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폴스타코리아는 폴스타 2가 성공적으로 국내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기차 업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마련했다. 5년 또는 10만km의 일반 부품 보증과 8년 또는 16만km 고전압 배터리 보증을 기본 제공하며, 보증 수리 시 픽업 앤 딜리버리 서비스도 무상 제공한다.

또 5년 LTE 데이터 사용 및 1년 플로(FLO) 뮤직 앱 서비스도 기본 제공하여 고객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했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구현모 "올해 안전·안정·디지코 방점... 사업 운동장 넓힐 것"

(KT 대표)

KT 파트너스데이

300여개 파트너사 비대면 참석
우수 협력사 협업, 그룹 전체 확대

KT가 올해 주요 경영 방향으로 '안전 대책 강화'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 '디지코 상생·성장'을 강조했다.

KT는 18일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제 8회 파트너스데이(Partner's Day)'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300여 개 파트너 기업들이 비대면으로 함께 자리 했으며,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KT 구현모 대표, Customer부부장 강국현 사장, 경영기획부장 박종욱 사장, Enterprise부부장 신수정 부사장, AI/DX융합사업부부장 송재호 부사장을 비롯해 일부 파트너 기업의 임직원들이 현장에 참석했다.

2014년 시작해 8회를 맞은 'KT 파트너스데이'는 KT와 파트너 기업들이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이 날 KT는 파트너 기업들에게 올해 주요 경영방향을 설명하고, ▲안전 대책 강화 ▲안정적인 고객 서



KT 구현모 대표(좌측)와 AI서빙로봇 파트너사 베어로보틱스 김준수 대표(우측)가 디지코 성장을 위해 협력을 강조하는 기념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모습. /KT

스 제공 ▲디지코 상생·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현장의 안전과 보건관리가 더욱 중요해진 만큼 KT는 안전대책 강화와 안전 인프라 체계적 개선을 최우선 강조했다. KT는 안전 전문가관과 협업해 공사현장 실증과 안정공법·장비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 위험성 점검장비(PCP스캐너)와 추락방지 보조기구를 보급하고 크레인·버켓차량 등 특수차량의 안전인증을 일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안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체험형 교육 등 파트너 기업 대

상 안전 교육을 연중 진행한다. KT는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파트너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또 안정적인 고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칙과 신뢰를 기반으로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올해도 지속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을 위해 장기수요 공유, 부품이원화, 소통합의체 강화 등을 통해 협력하고 고객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KT는 또 파트너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기술임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법률컨설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

고, 계약 전 과업수행 근절 등 하도급법 준수를 위한 파트너 제보창구 마련하고 파트너와의 신뢰를 강화한다.

이어 파트너 기업들의 사업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KT는 변화하는 사업영역에서도 상생을 지속할 수 있도록 새로운 파트너 개념을 도입했다. 물자, 공사 등 기존 통신사업 중심의 협력사 운영체계에서 다양한 신사업 영역을 포함한 파트너 생태계 확장으로 제휴와 투자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파트너 통합 플랫폼 '에코온'을 도입해 KT 사업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외부제안 프로세스를 개선해 파트너의 아이디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한다.

또한, 우수한 협력사의 기술과 솔루션 기반의 협업 범위를 그룹사로 확대해 사업 기회를 확장하고, 외부제휴 활성화, 지역기반 중소벤처 육성 등 대내외 협업체계를 더 강화할 계획이다.

KT 구현모 대표는 "DIGICO KT로의 성장이 본격화되기 위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파트너 기업들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KT가 사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활발한 소통·지원으로 파트너와 함께 성공스토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

LGU+ "SRT 기차, VR로 즐기세요"

LG유플러스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해 SRT(수서고속철도) 운영사 SR과 협업해 자사 XR(확장현실) 플랫폼인 'U+DIVE' 앱(App)을 통해 SRT 기차 여행 VR(가상현실)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양사가 공개한 기차여행 VR콘텐츠는 SRT 운전자 1인칭 시점에서 열차가 고속 주행하는 장면을 VR영상으로 제작한 실감형 콘텐츠로, 실제 SRT를 타고 기차여행을 가는 듯한 생동감을 선사한다. ▲동탄-공주 ▲공주-익산 ▲익산-광주송정 ▲광주송정-나주 ▲나주-목포 등 다섯 구간의 주행영상을 담은 각 5분 분량의 5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최대 300km/h의 빠른 이동에도 불구하고 상하좌우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 /채윤정 기자

SKT '누구 캔들 SE' 인터넷 판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 캔들 SE(NUGU candle SE·사진)'를 18일부터 11번가를 통해 판매한다. '누구 캔들 SE'는 인공지능(AI) 플랫폼과 조명 기능을 결합한 새로운 AI 기기로 인기를 끌었던 '누구 캔들'의 후속 모델로, 패브릭 컬러를 변경하고 음향 품질을 개선한 제품이다. '누구 캔들 SE'의 가격은 10만 9000원(VAT 포함)으로, 18일부터 11번가를 통해 구매 가능하다. /채윤정 기자



SKT 양자 기반 보안모듈, 국정원 KCMVP 인증

(암호모듈검증)

국가기관 납품 가능 보안수준 충족

SK텔레콤이 자사 양자암호 기반 전송암호화장비에 대한 국가정보원 인증을 획득, 국가기관 납품에 요구되는 높

은 보안수준을 충족한 국내 첫 사업자가 됐다.

SKT는 양자암호기연동국제표준을 만족하는 전송암호모듈로 국정원 암호모듈검증(KCMVP)을 국내 최초로 획

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SKT에서 인증 받은 모듈은 100Gbps·10Gbps급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하는 모듈 2개 제품으로, 고용량의 트래픽을 처리하는 차세대 광통신장

비(POTN)에 탑재된다.

SKT가 이번 인증에 적용한 '티 크립토'(T-Crypto)는 순수 국내 암호 기술인 'LEA'를 기반으로 최대 100Gbps 속도로 빠르게 정보를 전송하는 광회선에서 데이터 트래픽을 안전하게 암호화하거나 풀이할 수 있는 기술이다. /채윤정 기자

“美 우량 기술·헬스케어株 주목… ‘ESG투자’도 지속 관심”

AB운용 2022 주식·채권 전망

“美 증시 상승세 이어질 것
수익성 없는 기술주 ‘유의’”

“상반기 美 하일드 채권 주목
하반기엔 이머징 채권을”

얼라이언스벤처자산운용(AB자산운용)이 2022년 상반기에도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견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 기술주, 헬스케어주 등 우량주와 하이일드 채권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다.

AB자산운용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022년 글로벌 주식 및 채권 시장 전망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AB자산운용은 총 26개 국가에서 879조원(2021년 9월 말 기준)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금리 상승 직전·직후…주식 수익 확률 높아”

데이비드 워 AB자산운용 주식부문 선임투자전략가는 올해도 미국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강세장이 이어져 올해는 ‘꺾일 수밖에 없다’는 회의론에 대해 “미국 증시에 편입된 견조한 실적의 회사들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지난 1930년 이후 미국 증시의 실적을 보면 강세장은 평균 5년간 지속됐으며, 평균 수익률은 250%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통화 정책이 정상화되면서 주식 수익도 안정화 흐름을 따를 것이라 설명했다.

데이비드 워 전략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범위가 1~3%대로 유지될 경우 오히려 미국 주식이 가장 높은 실적을 제공한 ‘스위트스팟(Sweet Spot)’이었다”며 “또 금리 상승의 직전과 직후 전체 주식의 총수익이 플러스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의 실적이 탄탄한 ▲기술주 ▲헬스케어주 등 우량주에 관심을 가지라고 밝혔다. 또 미래 가치만 존재하고, 수익성이 없는 기술주에 대한 투자는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주식의 경우 ‘자사주 매입’ 비중이 높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AB자산운용은 올해 미국 기업이 8720억 달러로 역대 최고 수준의 자사주를 매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美 하이일드 기업, 펀더멘털 ↑

유재홍 AB자산운용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적극적인 글로벌 분산 투자를 기반으로 상반기에는 미국 하이일드 채권, 하반기에는 이머징 채권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지난해 미국 국채는 -2.6%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하이일드 채권은 6.0%의 플러스 수익률을 달성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미국 하이일드 채권의 부도율은 0.2%(과거 평균 3~4% 수준)로 사실상 부도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며 “또 등급이 올라가는 기업이 등급이 내려가는 기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는 미국 하이일드 기업 내의 펀더멘털이 지난해 현저하게 좋아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수익 채권에 투자하시되 하이일드 채권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만기를 줄인다든지, C등급 채권을 빼고 BB등급이나 B등급 위주로 구성하는 등 현명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선택이 하이일드의 위험 조정 수익률이 (하이일드 채권보다) 더 높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머징 채권, 특히 현지 통화로 표시된 이머징 채권에 관심을 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2022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이



18일 이창현 AB자산운용 대표가 ‘2022년 글로벌 주식 및 채권 시장 전망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머징 채권들의 금리 인상이 먼저 이뤄져 성장률 차이가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라고 했다.

유 매니저는 “주식시장이 먼저 ESG에 대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해외 채권시장 내에서는 ESG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화두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특성·환경 고려 표준감사시간 개정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사품질을 높이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 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표준감사시간’ 개정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의 개별특성 및 고유환경을 고려해 표준감사시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감사시간의 탄력성을 높인 것이다.

개정된 표준감사시간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표준감사시간 산정시 회사 개별특성 고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가산율 삭제 ▲상한·하한 규정 삭제 ▲가감요인 통합 및 간소화 ▲2022년에 2021년과 동일한 단계적 적용률을 적용 ▲법률, 회계·감사기준 변경시 표준감사시간 산정 근거 마련 등이다.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번 개정을 위해 실시한 한국회계학회 연구결과와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이후 기업의 감사품질이 전체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나타난 만큼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보이용자와 함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경 기자

디즈니가 인정한 디자인 역량 바탕 모바일 플랫폼 확장

IPO 간담회

하인크코리아

IBKS제15호스팩합병 코스닥 상장
올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

모바일 서비스 플랫폼 기업 하인크코리아가 오는 20일 IBKS제15호스팩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하인크코리아는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후 계획과 비전 등에 대해 밝혔다.

지난 2005년 설립된 하인크코리아는 주력 사업이었던 모바일 액세서리 제조·판매에서 최근 모바일 플랫폼 개발까지 사업을 확장시켰다. 삼성전자 모



18일 김상필 하인크코리아 대표이사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하인크코리아

바일 액세서리 파트너십 프로그램(SM APP) 파트너사로 스마트폰 및 무선 이어폰 케이스와 같은 각종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디즈니, 마블, 커피빈, 빙그레, 우영미 등 국내외 20여개 브랜드와 IT응용 제품 콜라보레이션을 진행

했다. 지난 2020년에는 월트디즈니로부터 디자인 역량을 인정 받아 ‘디즈니 크리에이티브 오브 더 이어(Disney Creative of the Year)’ 디자인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디자인 역량을 바탕으로 개인이 모바일 액세서리를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콘텐츠 플랫폼 ‘롤리바일(Loliblib)’을 출시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자체 브랜드 ‘네마메(NEMAME)’를 만들어 국내 온라인과 해외 아마존 진출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QR 및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접목시킨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바로다(Baroda)’를 출시할 예정이다.

김상필 하인크코리아대표이사는 “하

인크코리아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24.4%를 달성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시장이 침체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가치 사업모델을 발굴하며 지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스닥 상장을 통해 기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출시 등 신사업을 통한 사업 확장으로 모바일 플랫폼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인크코리아는 이번 스펙 합병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연구개발, 시설 및 운영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지난 12월 30일 합병기일을 거쳐 오는 20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한국투자증권

스텝다운형 ELS 50억 한도 모집

한국투자증권이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전용 스텝다운형 ‘TRUE ELS 14685회’를 총 5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홍콩H(HSCEI),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유로스톡스(EUROSTOX X)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이 상품은 스텝다운형 구조로 만기는 3년이다. 6개월마다 기초자산을 관측해 상환 여부를 판단하며 최초기준가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70%(만기) 이상일 경우 연 7.50%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만기까지 상환조건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만기 시 총 22.50%(연 7.50%)의 수익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만기 시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70% 미만이라면 원금의 100%까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 개인투자자는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청약이 가능하며 투자자 숙려제도에 따라 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숙려기간을 갖게 된다. 이후 24일부터 25일 오전 10시까지 영업점 및 ‘한국투자’ 앱 등을 통해 청약을 확정하면 된다.

/박미경 기자

에탁원, ‘증권형 토큰’ 법제화 대비 공동연구 진행

혁신기술 활용방안 다각적 모색
관련개념 검증 연내 조사 마무리

한국에탁결제원이 증권형 토큰(STO) 법제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연구 수업을 시작했다.

에탁결제원은 자본시장 후선업무에 대한 혁신기술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증권형 토큰의 법제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동력을 모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분산장부 등 혁신기술 기반의 신규 금융자산의 등장 및 관련 인프라 확산에 따른 선제적·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다.

지난 2018년부터 에탁원은 블록체인의 기반 전자투표 시범운영을 완료했으며, 채권장외결제업무에 대한 블록체인의 기술검증(PoC) 컨설팅을 마쳤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투표 시범운영을 통해 주주의 전자투표 내역을 복수의 기관이 분산보관함으로써 투명성과 위·변조방지 효과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PoC 컨설팅을 통해서도 에탁원 기간업무에 적용가능한 블록체인의 기술적 적용 가능성 등을 확인했다.

에탁원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증권형 토큰 관련 개념 검증에 돌입했

으며, 올해 안에 관련 제도 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업무를 대상으로 시장의 발행총량 관리 및 유통 기능을 지원하는 분산장부 기반 발행유통 플랫폼에 대한 개념설계와 검증작업 수행했다.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유입 방지는 물론 다양한 결제주기를 지원하는 투자자 보호 중심의 플랫폼에 대한 개념을 검증했다.

관련 제도 조사는 지난해 10월 분산장부 기반의 증권형 토큰을 수용하는 독일 전자증권법의 검토 및 번역을

통해 출간을 마쳤다. 이어 가상자산 관련 제도적 수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한국법제 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를 수행 중이다.

에탁원은 향후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혁신기술의 업무 적용 검토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법제화 가능성은 물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다각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증권형 토큰의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과 같은 금융선진국의 관련 사용 사례(Use-Case)에 주목해 관련 법제도 및 인프라 구축 현황을 검토 중이다.

한국에탁결제원 협찬 /박미경 기자



밀키트 무인판매기 무상지원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 방식
- 카드를 삽입하면 문이 열리고 제품을 꺼내면 자동결제되며 카드를 빼면 문이 잠깁니다.

메뉴

- 부대찌개
- 닭볶음탕
- 찜 닭
- 제육볶음
- 소고기 무국
- 미역국
- 차돌 된장찌개
- 즉석 떡볶이
- 치즈 떡볶이
- 크림 떡볶이
- 크림 파스타
- 순대볶음
- 소불고기
- 고등어조림
- 갈치조림

- 맛은 백종원의 황금레시피가 보증하고 가격은 국내 최저가에 도전합니다.

문의 SC월드와이드 1544-2807

대선·규제·금리 불확실성 이겨낼 튼튼한 알짜아파트

집값 급등과 부동산시장 규제 정책으로 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오는 3월 대선 결과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고분양가관리지역 모두 분양가 산정 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일부지역에서 적용된다. 민간택지는 '투기과열지구'에 공급되는 아파트 대다수가 적용을 받고 있다. 고분양가관리지역은 '분양가 상승이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지역'과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이 지속돼 고분양가 사업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HUG가 지정하고 있다. 고분양가관리지역 내에서 신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주변 시세의 85~90%수준을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분양가가 책정된다. 청약 대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강북 첫 Xi... 삼양·미아 더블 역세권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GS건설

GS건설이 서울 강북구에 최초로 공급하는 올해 첫 자이(Xi) 아파트인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서울 강북구 미아3구역에 재개발해 38~112㎡ 1045가구 중 32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38㎡ 7가구 ▲42㎡ 6가구 ▲51㎡ 11가구 ▲59㎡ 38가구 ▲84㎡ 203가구 ▲112㎡ 62가구 등이다. 청약 일정은 오는 2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해당), 25일 1순위(기타), 26일 2순위 청약접수를 받는다.

북서울자이 폴라리스는 단지위 우이신설선 삼양역과 바로 인접해 있고, 지하철 4호선 미아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단지다. 또한 차량을 이용해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로 접근이 용이하다. 뿐만 아니라 오는

2025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 및 2027년 개통 예정인 GTX-C노선(덕정~수원 구간)과 연계성이 우수해 강남 및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더 개선된다.

생활 인프라로 도보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삼양초와 수유초가 위치해 있고 영훈초, 화계중, 수유중, 미양중, 신일중학교를 비롯해 혜화여고, 미양고, 신일고교 등 단지 1km 반경 내에 다수의 학교가 위치해 있다. 게다가 단지 건너편으로 롯데마트와 삼양시장이 위치해 있고, 반경 2km 이내에 수유시장,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이 위치해 있다.

특히 단지 인근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되면 약 1만여 가구가 입주 예정으로 향후 북서울자이 폴라리스의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마련되며, 입주는 오는 2024년 8월 예정이다. ☎ 1833-2997



새로운 주거 플랫폼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DL이앤씨

DL이앤씨는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4개 단지 2329가구 중 토지 등 소유자 물량과 임대 물량을 제외한 3개 단지 전용면적 46~98㎡ 1087가구를 일반분양한다. 공급방식은 46~84㎡ 1058가구는 국민주택으로 공급하며, 98㎡ 29가구는 민영주택으로 공급한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면적별로 살펴보면 1단지 ▲46㎡A1 97가구, 3단지 ▲59㎡A3 189가구 ▲59㎡B3 377가구 ▲74㎡A3 533가구 ▲74㎡B3 207가구 ▲74㎡C3 118가구 ▲84㎡A3 76가구 ▲84㎡B3 163가구 ▲98㎡A3 17가구 ▲98㎡B3 33가구 ▲98㎡C3 9가구(세대구분형), 4단지 ▲46㎡B4 195가구 ▲59㎡C4 56가구 ▲59㎡D4 14가구를 구성된다.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 주택전시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예방



노태근린공원 품은 1608가구 대단지

한화 포레나 천안노태
한화건설

한화건설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 440-11, 백석동 76-50 일원에 들어서는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한화 포레나 천안노태' 아파트 84~114㎡, 1608가구를 선보인다.

타입별로는 ▲84㎡A 527가구 ▲84㎡B 339가구 ▲84㎡C 136가구 ▲84㎡D 340가구 ▲114㎡A 119가구 ▲114㎡B 123가구 ▲114㎡C 24가구다.

천안시가 민간공원 조성을 추진 중인 노태근린공원과 바로 인접해 있다. 단지를 품은 노태근린공원은 총 17만8041㎡ 규모로 축구장(국제규격 7140㎡) 약 25개 크기로 조성될 예정이다. 천안시에 따르면 숲정원들, 놀이숲, 한들숲마당, 전망마당 등 4개의 커뮤니티 마당과 푸른숲길, 문화숲길 등의 숲길, 숲놀이터, 산책로, 운동시설과 편의시설 등 다양한 공원시설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4베이(Bay)

혁신평면 및 2면 개방 타워형 설계와 현관창고, 팬트리 등(타입별 상이)을 통해 넉넉하고 쾌적한 내부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84㎡A 타입과 84㎡D 타입은 4Bay 관상형구조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고 확장성 동선이 편한 'ㄷ자형 주방'이 적용된다. 84㎡B와 84㎡C 타입은 일조권과 조망권 확보에 유리한 2면 개방형 타워형 구조이다. 현관창고, 팬트리 적용으로 여유로운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114㎡A, B, C 타입은 방 4개 구조로 넉넉한 수납공간을 배치해 공간활용을 강화, 고급스러운 로얄무드 콘셉트를 적용했다.

한화 포레나 천안노태는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해당지역 1순위, 26일 기타지역 1순위, 27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한화 포레나 천안노태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견본주택을 공개하며, 실제 견본주택은 당첨자 발표 후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 1666-9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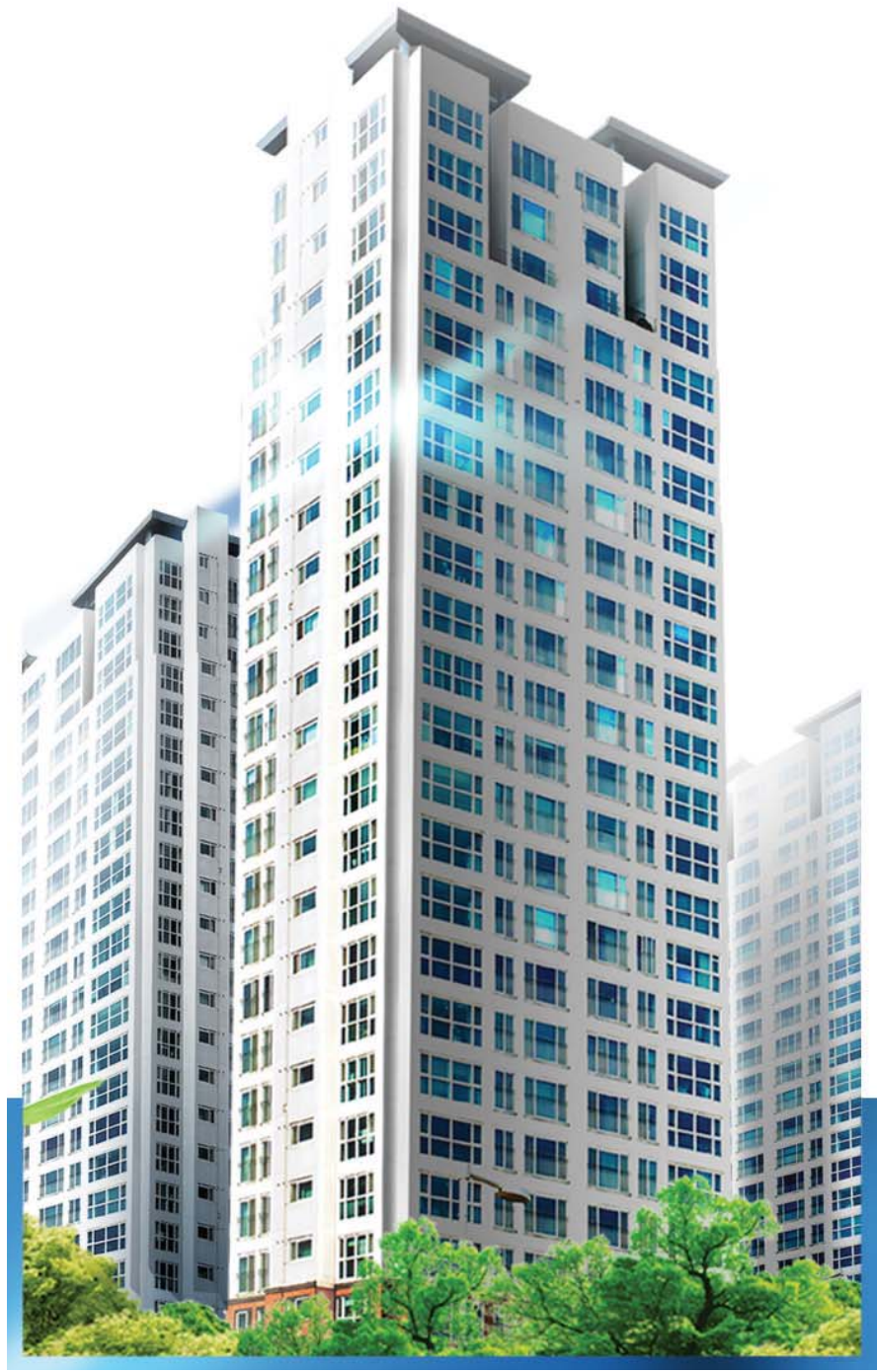
사통팔달 교통망...

호반씨밋 포레스트
호반건설

호반건설이 시공하는 '호반씨밋 포레스트'가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

'호반씨밋 포레스트'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218-33 일원 삼룡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조성된다. 단지는 76~144㎡ 594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76㎡ 160가구 ▲84㎡ 430가구 ▲129㎡ 2가구 ▲144㎡ 2가구다. 분양 일정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해당지역, 26일 1순위 기타지역, 27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판상형과 탑상형의 복합 설계를 적용한다. 가사동선을 고려해 주방 가구를 배치하고, 드레스룸, 다목적실 등 다양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유상옵션을 통해 현관 창고장, 주방 팬트리, 파우더장, 침실3 팬트리 등 수납공간을 추가로 확





‘C2 하우스’ 적용

(가변형 구조 설계)

을 위해 사전 방문예약제로 운영한다.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의 청약일정은 오는 24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5일 1순위 해당지역, 26일 1순위 기타지역, 27일 2순위 청약 접수를 한다.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이 들어서는 안양시 만안구의 경우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며 신중 주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다.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공동주택단지를 비롯해 공원, 녹지, 유치원 부지가 계획돼 있다.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은 반경 1km 거리에 지하철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이 위치해 있다.

안양 어반포레 자연& e편한세상은 e편한세상만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가 적용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사우나, 스크린골프 등 입주민의 건강을 생각한 헬스 시설이 들어서며 어린이집, 키즈스테이션, 실내·외 놀이터, 독서실 등 자녀를 위한 다양한 공간이 마련된다.



3개 블록 대단지... 모현도시개발 호재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이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왕산리 산25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총 3개 블록, 59~185㎡로 구성되며 1블록 1043가구, 2블록 1318가구, 3블록 1370가구 등 3731가구로 조성된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모현(왕산) 도시개발사업 구역 안에 조성된다. 도시개발사업이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 조성 사업을 가리킨다.

모현(왕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약 36만4232㎡ 면적에 공동주택, 학교, 보육시설, 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등의 부지가 계획돼 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풍부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다.

힐스테이트 몬테로이는 고산IC, 태전분기점(JC)을 이용해 광주 태전지구

를 비롯한 판교·분당신도시로 진입이 편리하다. 또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에 경강선 경기광주역이 있다.

경기광주역의 경우 서울 지하철 3호선 수서역과 경기광주역을 잇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예정돼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 노선은 오는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지난 2019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오는 2024년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이다. 이중 용인시를 지나는 안성~구리 구간은 2022년 말 개통이 목표다. 특히 새골산에 둘러싸여 있고 경안천 등이 가깝다.

3개 블록의 대규모 단지인 만큼 커뮤니티 시설도 대규모로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각 블록별로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및 실내버거리골프장, 사우나, H 아이숲(실내어린이놀이터), 상상 도서관, 프라이빗 오피스 등이 조성된다.

☎(031)717-3731



SRT 이용 편리... 강남·천안 20분대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츠

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오는 2월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181-4 일원 동삭세교지구 도시개발구역 공동 1블록에서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츠’ 84㎡812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84㎡A 527가구 ▲84㎡B 225가구 ▲84㎡C 60가구 등이다.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츠는 다수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는 평택시 내에서도 입지가 우수한 동삭세교지구에 들어서 SRT, KTX(계획), 1호선 등 트립플 노선이 정착하는 복합환승역인 평택지제역 이용이 편리하다.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츠는 SRT 정차역이자 지하철 1호선 평택지제역이 가깝다. SRT 이용 시 강남 수서역까지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으며, 1호선 이용 시 수원역까지 30분대, 천안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평택지제역에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이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은 경부선 서정리역과 수도권 고속철도 평택지제역간 연결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제역 푸르지오 엘리아츠는 인근 삼성전자 평택산업단지과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의 직주근접 단지다.

삼성전자 평택산업단지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인 총 238만㎡에 달한다. 현재 가동 중인 P1, P2의 경우 약 3만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발생했으며, 50조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P3가 올해 준공될 예정이다.

전 세대에 현관 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 넉넉한 수납공간이 조성되며 공동욕실에 호털식 건식 세면대와 분리형 욕실이 무상 시공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클럽, 독서실, 키즈카페 등 다양한 공간이 들어선다.

☎1533-0262



천안~아산 자유롭게

보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작은 도서관 등이 마련될 예정이며, 단지 내 산책로와 다양한 정원 등도 조성된다. 또한, 홈네트웍 시스템을 통해 난방 및 조명 제어, 엘리베이터 콜, 차량도착 알림, 원격검침 연동 등이 가능하고, 무인택배 시스템, 지하주차장 비상벨, 주차관제 시스템 등도 제공된다. ‘호반씨앗 포레스트’는 천안삼거리공원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고 일부 가구에서는 공원 조망도 가능하다.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갖추고 있다. 남부대로와 천안대로를 이용해 천안 및 아산 시내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천안IC)와 논산천안고속도로(남천안IC)를 통해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또 인근으로 아산천주고속도로(아산-천안)가 개통 예정이어서 광역 교통망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천안역과 천안종합터미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



신림역 지하도 연결 ‘직통역세권’ 단지

센트레빌 335

동부건설

동부건설이 오는 2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에 ‘센트레빌 335’ 오피스텔 분양에 나선다. 지하 7층~지상 20층, 51~62㎡ 총 335실 규모다.

지하철 2호선 신림역 6번 출구와 지하도로 연결돼 초역세권을 뛰어넘은 ‘직통역세권’ 단지로 불린다. 지하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굳은 날씨에도 무리 없이 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 신림역은 경전철 신림선이 2022년 5월 개통 예정이어서 향후 더블 역세권으로 거듭날 전망이다. 신림역에서 2호선 강남역까지 8정거장 거리며, 개통 예정인 경전철 신림선을 이용하면 셋강역까지 7정거장 만에 도달할 수 있다.

또 ‘센트레빌 335’는 남부순환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이 인접해 있다. 오는 2023년 10월에는 ‘신림봉천터널’이 완공 예정이며, 해당 터널을 이용하면 남부순환로 시흥 나들목부터 금

천구 강남순환로 봉천터널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인근에 보라매공원, 신림근린공원, 도림천 산책로 등이 도보권에 있어 자유롭게 산책과 운동을 즐길 수 있다. 특히 보라매공원은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등 총 3개 구에 맞닿은 면적 총 41만3352㎡의 서울 서남권 대표 공원으로 조깅트랙 및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운동시설을 갖추고 있다.

단지 내에는 옥상정원, 커뮤니티센터 및 전기차 충전소 등의 특화시설을 도입해 주거편의성을 높였다. 1·2인가구를 고려한 투룸 설계로 효율성을 높였으며 식기세척기, 건조기, 스타일러, 팬트리, 드레스룸 등 기존 오피스텔에서 보기 힘든 풀퍼니시드 시스템을 일부 세대에 적용한다.

건본주택은 서울 서초동 1720-5에 위치해 있으며, 2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하는 오는 2024년 하반기 예정으로, 상업시설도 별도 분양할 예정이다.

☎1533-2335



전 세대 동천 조망권 ‘에코 힐링 아파트’

마크원 순천

중우건설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오는 2월 하이엔드 대형 아파트 ‘마크원 순천’이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제이엠에셋이 시행하고 중우건설이 시공하는 ‘마크원 순천’은 전남 순천시 석현동 28-1 일원에 112~153㎡ 99가구로 조성된다.

주택형별로 ▲113㎡A 9가구 ▲전용 113㎡B 47가구 ▲전용 112㎡C 15가구 ▲전용 112㎡D 10가구 ▲전용 124㎡E 8가구 ▲전용 123㎡F 8가구 ▲전용 153㎡PA 1가구 ▲119㎡PB 1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전용 153㎡PA·119㎡PB는 팬트하우스로 조성되며, 전용 주차장과 라운지가 제공된다.

‘마크원 순천’은 수려한 자연을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에코 힐링 아파트로 선보인다. 깨끗한 동천이 단지 앞을 흐르고, 동천천변공원을 품고 있다. 순천 원도심 내 핵심입지로 각종 도로와 가까이 차량을 이용한 광역 이동이 수월

하고,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자리한 안심초등학교를 자랑한다.

‘마크원 순천’은 단지 바로 앞에 동천이 흐르고 있어 전 세대에서 탁 트인 시야와 동천을 영구 조망할 수 있다. 여기에 봉화산의 사계를 담은 명품 전망과 함께 동천천변공원도 가깝다.

생활편의시설로 순천시문화건강센터, 순천문화예술회관 등 문화기반시설들이 단지 인근에 조성되어 있는 것은 물론 순천대학교 근처에 형성된 상권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순천보건소 및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등 탄탄한 의료인프라도 갖췄다.

순천의 중심을 관통하는 중앙로와 가까이 도심 진입이 편하고, 순천IC 접근도 용이해 광양·여수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도 수월하다. 차량 10분 거리에 있는 순천시외버스터미널과 KTX순천역을 이용하면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한편 ‘마크원 순천’ 건본주택은 전남 순천시 석현동 4번지에 마련된다.

☎(061)751-9901

악조건에도 韓 자동차 생산량 ‘세계 5강’... 친환경차 선전

코로나·공급망 악재에도 양호 수출 대수·금액 9년 만에 증가세 하이브리드차 수출 71% 급증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수출선적 부두.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과 내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계 자동차 생산 5위는 유지했다. 코로나19와 공급망 악재에도 선전했다는 평가다. 특히 친환경차 선전이 두드러졌다. 수출과 내수 차량 5대 중 1대 꼴로 친환경차가 차지했고, 그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 대수와 금액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1년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년 대비 생산은 -1.3%, 내수는 -8.5%로 감소한 반면, 수출 대수와 금액은 각각 8.6%, 24.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은 346만대로 전

년(351만대)보다 소폭 하락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95만대와 비교하면 10%를 훌쩍 넘는 감소다.

하지만 주요국 자동차 생산순위는 지난해에 이어 5위를 유지해 악조건 속에서 양호한 실적이란 평가다. 한국의 자

동차 생산 순위는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2019년엔 7위였으나, 코로나19 이후 2년 연속 5위로 순위는 오히려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자동차 생산국 순위는 1위 중국, 2위 미국, 3위 일본, 4위 인도다.

내수는 전년도 역대 최대 판매(189만대)에 따른 역기저효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인한 생산 차질 등으로 전년 대비 8.5% 감소한 173만대를 기록했다. 국산차는 친환경차 판매가 40.3% 급증했으나 출고 적체 현상으로 전년 대비 10.4% 감소한 142만9000대, 수입차는 독일계 브랜드 판매 증가로 2.0% 증가한 29만7000대를 판매했으나, 전년 증가율(9.8%)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수출 대수와 금액은 2012년 이후 9년 만에 동반 증가세로 전환했다. 자동차 수출 증가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와 글로벌 시장 내 국내 브랜드 점유율 상승 등이 긍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전년 대비 71.0% 급증하는 등 친환경차 수출 대수가 대폭 증가(+50.0%)한 것이 전체 자동차 수출을 견인했다. 수출 금액은 친

환경차 수출 비중 증가에 따른 수출 품목 고도화로 전년 대비 24.2% 증가한 464억7000만달러로 2014년(484억달러)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대비 8.0% 증가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를 뛰어넘어 코로나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다.

친환경차 내수는 전체 자동차 판매 비중의 20.1%를 차지했고, 전기·수소차는 사상 처음으로 10만대를 돌파한 10만5000대를 판매했다. 특히 전기차는 아이오닉5EV, EV6 등 신차 출시 효과로 인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며 내수 판매를 견인했다.

지난해 자동차부품수출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자동차 판매 호조로 전년 대비 22.2% 증가한 227억8000만달러를 달성, 7년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北, 북한판 ‘에이태킴스’ 발사... 與 종전선언 무색

군당국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대북기조에 군 내부서 불안감 나와



북한 노동신문이 18일자 3면에 보도한 KN-24 시험발사 장면.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북한이 지난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북한판 ‘에이태킴스’로 불리는 KN-24였다. 에이태킴스는 목표를 향해 유도사격이 가능한 지대지미사일이다.

북한은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해, 범여권의 ‘종전 선언’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18일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기관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전술유도탄은 북한이 지난 2019년 8월과 2020년 3월 시험발사한 KN-24와 동일한 형상이다. KN-24는 한반도 이남 전역에 대한 핵공격이 가능한 위협적 무기체계다. 최대사거리 500km 내외로 다른 탄도미사일에 비해 짧은 편이지만 핵탄두의 소형화를 거치면 핵공격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KN-24라고 탄종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해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약 4분 간격으로 2발이 발사됐고, 비행거리 약 380km, 고도 약 42km로 탐지됐다고 밝힌 바 있다.

범여권의 눈치를 보는듯 한 인상을 보였던 군 당국도 북한의 무력도발 행보에 대해 ‘위협’이라는 평가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군사위협으로 평가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당초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국에 대한 ‘도발’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서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영해·영공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군당국의 입장변화에도 정부를 비롯한 범여권은 북한의 연이은 무력행사에 대해 애써 외면하려는 분위기다. 같은 날 통일부는 “전체적으로 자위권 부분보다는 발사 과정에 대한 설명에 치중한 형태”라며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는 어느 한 방향으로 단정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와대도 전날 NSC를 마친 뒤 내놓은 보도자료에 “북한이 올해 네 차례나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 그 배경과 파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만 밝혔을 뿐, 북한에 대한 경고

메세지는 전하지 않았다.

군 내부에서는 정부를 비롯한 범여권의 편향된 대북관이 군의 안보상황의식과 전투대비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의 지휘관은 “북한과 전쟁을 하자는 식의 강경론도 위험하지만, 북한의 위협에 대한 화만을 주장하는 것도 군의 본질을 흔들 수 있다”며 “보수는 미국의 뒤에 숨어 경제만 돼지처럼 살찌우고, 진보는 자주국방이라며 고가의 무기체계를 사들일뿐 싸우지 못한다”고 한탄했다.

북한의 무력도발 행보는 중국 베이징에서 2월 개최되는 동계 올림픽 전까지 이어졌다가 잠시 소강 상태를 거친 후,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는 3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업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올림픽 선수들이 입촌하는 이달 25일이 일주일 남은 상태여서 이 기간 추가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고 3월 대선 직후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면 더 강도 높게 도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전자영수증·다회용기로 탄소 포인트 적립 받는다

19일부터 종이 대신 전자영수증을 받으면 100원, 배달 음식 등에 다회용기를 쓰면 1000원 등을 ‘탄소 포인트’로 받게 된다. 오는 6월부터는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 사용시 보증금을 내야 한다. 사용한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환경부는 일상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시 정부가 현금 또는 카드 포인트를 주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를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포인트 대상은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이용 ▲다회용기 배달 ▲무공해차 대여 ▲그린카드 ▲기후행동 1.5도 앱 실천챌린지 참여 등 6가지다.

포인트는 회원 가입 후 하나 이상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할 경우 최초 5000원이 지급된다. 이후 각각 1회당 전자영수증은 100원, 리필스테이션 이용은 2000원, 다회용기는 1000원, 무공해차 대여는 5000원, 친환경상품은 1000원이 지급된다.

기존 그린카드 사용자는 친환경제품 구매시 포인트가 추가로 적립된다.

대상별로 상한액은 정해져 있다. 전자영수증과 리필스테이션, 다회용기, 친환경상품은 각 1만원, 무공해차 대여는 2만5000원이다. 1인당 연간 상한액은 총 7만원이다.

다만, 기후행동 1.5도 앱 실천챌린지(연 4회)는 포인트 대신 참여한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상장 및 상금으로 준다.

참여기업은 전자영수증의 경우 갤러리백화점, 롯데,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6곳이다.

세제·화장품 구매 시 빈 용기에 담아 오는 리필스테이션 7곳(아로마티카,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슈가버블, 에뛰드, 알맹삼점, 외플), 다회용기 2곳(요기요, 경기도배달특급), 무공해차 대여 3곳(쏘카, 그린카, 피플카), 친환경상품구매(그린카드 이용자) 등이다.

포인트를 받으려면 먼저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소 잃고 외양간 안돼”... 전국 건설현장 집중 점검

고용부-안전보건공단, 순찰 강화

정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전국의 건설 현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18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17일부터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전국 주요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현재 광주 붕괴 사고 대응반을 구성했고, 특별감독에 전문가를 파견했다.

안중주 공단 이사장은 이날 광주 붕괴 사고 관련 전국 30개 일선 기관장과 대책회의를 열어 사고 원인에 대한 철

저한 조사와 전국의 건설 현장 점검 강화를 지시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는 지난 11일 화정아이파크 2단지 아파트 한 개 동 23~38층 외벽과 내부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고, 현재 실종자 5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진행 중이다.

공단은 또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사 규모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에 대한 점검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최근 5년간 사망 사고가 자주 발생한 지역을 ‘레드존’으로 선정해 상시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이 지난 12일 올해 첫 1074개 사

업을 점검한 뒤 건설·제조업 599곳에서 1308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업 516개 현장에서 1158건이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 미설치,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기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 83곳에서도 방호 조치, 지게차 관련 150건의 미흡 사항을 적발했다.

아울러, 공단은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사망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올해 관련 예산 1197억원을 마련했다.

안 이사장은 “광주 붕괴사고에 철저한 현장 조사와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구조안전 자문단들이 크레인 이용해 진입하고 있다. /뉴시스

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조기 안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장 소통 중심의 재해예방 활동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 감소에 획기적 전환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버스 속 소소한 재미

버스족(族) BUSJOK

버스 매일 탑승하시나요?
서울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선물합니다.



[버스족 이벤트 참여 방법]

1 서울시내버스를 타고
YapTV 속 콘텐츠를 본다.



2 영상 속 AR코드를 촬영한다.
*버스족 앱의 AR촬영 카메라만 참여 가능!



3 이벤트 참여하면
[다양한 브랜드] 선물이 속!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버스족을 검색하세요.



부산도시철도 급행 생긴다... 2차 변경안 승인

지역 이모저모

오륙도 연장선 등 10개 노선 확정
철도 운영 효율성 강화 위해 수립
도시철도 접근 시간 1.81분 단축



부산시청

국토교통부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변경(안)'을 18일 최종 승인을 했다.

이번 변경계획은 '제1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17.6.) 후 그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타당성을 재분석한 현실적인 계획으로, ▲대중교통망 확충을 통한 도시철도 서비스 제고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광역철도와의 네트워크 기능 강화 등 도시철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망을 구현하기 위해 수립됐다.

국토부의 변경계획 승인에 따라, 10개 노선(92.75km 신규 4개, 기존 6개)이 도시철도망 구축 대상노선으로 확정됐다. 4개 노선이 신규로 추가 반영됐고, 기존 7개 노선(83.0Km)은 일부 노선을 하나의 노선으로 병합해 6개 노선으로 조정됐다.

구체적으로, 신규노선은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오륙도 트램실증노선(1.9Km)에서 오륙도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오륙도 연장선'(3.25Km)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2호선(장산역)을 연장하는 '오시리아선'(4.13Km) ▲도시철도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한 도시철도 '1·2호선 급행화' 노선 등 4개 노선이 추가됐다.

기존노선에서는 ▲도시철도(1호

선)와 동해선의 네트워크 효과 증대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정선과 정관선이 '노포~정관선'으로 병합됐고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C-Bay~Park선'은 용두산공원·광복동·부평동 구간을 순환하는 노선으로 연장됐다. 그리고 ▲'송도선'은 C-Bay~Park선과 연계 및 사하경찰서 경유를 위해 노선이 변경되는 등 도시철도 간 연결성 강화와 이용 편의를 위해 기존 노선 일부 구간이 조정·변경됐다. 이

외 기존노선인 하단녹산선, 기장선, 강서선은 당초 계획대로 유지됐다.

도시철도망 구축 대상노선 선정기준(경제성 0.7 이상, 종합평가 0.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변경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초읍선, 영도선, 우암~감만선, 동부산선은 후보노선으로 선정돼 장기 우선 검토노선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이번 변경계획에 반영된 대상노선이 모두 건설되는 2036년에는 도시철도 수단분담률이 기존 11.04%에서 14.08%로 3.04%p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더욱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분 이내 도시철도역으로 접근 가능한 행정동이 128곳에서 152곳으로 늘어 평균 접근시간이 기존 9.06분에서 7.25분으로 1.81분 단축되고, 도시철도 역세권 인구도 기존 82.8%에서 88.0%로 5.8%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도시철도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metroseoul.co.kr

부산시, 미세먼지 차단에 86억 투입

오시리아관광단지 등 5곳에 조성



부산시 강서구 미세먼지 차단숲

부산시가 생활권 내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86억 원을 투입해 도심 속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나선다.

미세먼지 차단숲은 주요 대로변 및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도심 내 생활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성되는 숲이다. 미세먼지 흡착 및 흡수 기능이 높은 수목으로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와 도시열섬 현상 등 미세먼지 증가에 따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당 연간 35.7g(에스프레소 한 잔)의 미세먼지를 저감하며 경유차 1대의 연간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 47그루의 나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심 생활권 내 조성되는 도시숲의 경우 미세먼지(PM10) 농도를 평균 25.6%,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평균 40.9%까지 저감하는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부산시는 올해 ▲해운대구 동해남부선 주요 철도역 ▲사하구 신평동 강변대로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완충녹지 ▲사상구 사상역 공영주차장 ▲기장군 오시리아관광단지 일원 등 5곳에 8.6ha 규모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80억 원을 투입해 감천항, 사상공단, 녹산공단 등 주요 산업단지 16곳에 18ha 규모의 차단숲을 조성했으며, 오는 2025년까지 도시의 허파 역할을 할 미세먼지 차단숲을 지속해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장병호 기자

영암군 긴급차량 자동 진·출입 시스템 도입

긴급상황시 골든타임 확보

영암군은 경찰·소방차 등 긴급차량 주차가 위급상황 시 무인 차단기를 자동 통과하는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

긴급자동차 자동 진·출입 시스템은 개정된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2021년 11월부터 긴급자동차를 대상으로 교체 및 발급된 전용 번호판

(998~999)을 인식하여 무인 차단기 등을 자동으로 진입해 대형화재나 강력범죄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영암군은 1월 중으로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을 인식하는 자동 진·출입 시스템이 미적용된 무인차단기 관리자에 대해 개선 독려를 할 예정이며, 시스템 정착을 위한 홍보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영암(전남)=김희선 기자 khs161700@

광주시, 월세지원·그린리모델링

'1인 가구' 건강한 삶 지원

5개 분야 총 22개 사업
1인 가구, 32.4% 차지

광주광역시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1인가구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시 1인가구는 지난 2020년말 기준 32.4%(19만 3948가구)로, 2000년 14.7%(60,207가구)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국 평균 1인가구 비율인 31.7%에 비해서도 높다.

광주시는 2019년 10월 1인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20년에는 1인가구 실태를 조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인가구 지원 대상별 정책 수요를 반영해 경제활동 지원(5개 사업), 주거지원 및 안전 확보(8개 사업), 사회적 관계망 강화

(6개 사업), 건강증진 지원(2개 사업), 시민 인식 개선(1개 사업) 등 5개 분야에서 총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정책 대상별 주요 사업을 보면 1인가구의 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주거지원을 위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53억원), '1인가구 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195억원) 여성 1인가구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 범죄예방 취약가구 지원'(8000만원), '1인가구 여성안전 지킴'(1200만원) 1인가구의 고립 방지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동아리 활동지원, 행복밥상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자치구 중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동구와 협업체 선정된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은 동구민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

하동군 농식품 7500만달러 수출 발판 마련

수출·유통 촉진간담회 개최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 6508만달러, 국내 유통 620억원을 달성한 하동군이 올해 농식품 수출 7500만달러, 유통 700억원을 목표로 잡고 목표 달성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하동군은 지난 17일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윤상기 군수 주재로 2022년 농식품 수출·유통 촉진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은수 NH농협군지부장, 조철수 하동축협 전무, 여

근호 하동농협조합장, 박한균 지리산청학농협조합장, 강규훈 하동군수출협회장 등 유관 기관장과 수출 농가·단체 및 업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유통 실적 및 주요 성과 보고, 2022년 농식품 수출·유통 촉진 계획 및 지원 정책 설명, 농가·업체의 동향 및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이날 논의된 촉진 방안과 애로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부산관광공사 사장에 이정실 교수

부산시는 18일 부산관광공사 사장에 이정실 동명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부산지방공단스포윈 이사장에 조용래 전 남구 부구청장을 각각 임명했다.

임기는 각각 2022년 1월 18일부터 2025년 1월 17일까지 3년간이다.

신임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은 다양한 관광 관련 협회 및 위원회에 참여하는 등 지역 관광업계와 자주 소통하면서 관광에 대한 폭넓은 견해를 지닌 관광 분야 전문가이다.

또한, 신임 조용래 부산지방공단스포윈 이사장은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 국장, 남구 부구청장 등을 거치는 등 많은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겸비한 행정 전문가이다.

/부산=장병호 기자

화순군, 사랑의 헌혈증서 기부

화순군(군수 구충근)이 화순전남대학교 병원에 헌혈증서 100매를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군 직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암·백혈병 등 환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증서 기부에 동참했다.

화순군은 올해도 부족한 응급 혈액 확보를 위해 오는 25일 화순군 의회동 4층 대회의실과 행복민원과 앞에서 '동절기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 계획이다.

/화순(전남)=김태수 기자

구례군,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전남 구례군은 24일부터 군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 씩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2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구례사랑상품권으로 현장 배부한다. 구례군은 명절 대목을 앞두고 28일 열린 5일시장 설 대목장 이전에 집중적으로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될 구례사랑상품권은 구례의 전통시장 등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명절을 앞둔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례(전남)=심인주 기자 6007sim@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대한민국축제콘텐츠 '대상'

보성군의 대표축제인 '제23회 서편제 보성소리축제'가 (사)한국축제콘텐츠협회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매년 전국의 실력 있는 소리꾼들이 참여해온 서편제 보성소리축제는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취소될 위기에서 무관중 경연대회로 전환하여 개최되었다.

2021년 제23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는 10월 1일~3일 동안 열렸다.

/보성(전남)=문성환 기자 m8527188@

이승준의 오리온號 출범... R&D·글로벌 공략 '맛' 잡는다



오리온 한국 법인 대표이사 겸 글로벌연구소장에 이승준 내정

R&D 집중투자 신제품 개발 올인 현지화 체제 강화로 글로벌 강화

中 본부장·팀장 등 현지인 발탁 베트남 현지 식품제조사 1위 목표



이승준 오리온 대표이사 사장 /오리온

오리온이 R&D(연구 개발) 역량 강화와 해외 현지화 전략에 집중해 제과 업계 선두를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오리온그룹은 2022년 정기 임원 인사에서 이승준 사장을 한국 법인 대표이사 겸 글로벌연구소장으로 내정했다. 1989년 오리온에 입사한 이 대표는 국내 최고의 식품개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오리온에서 상품개발팀장, 중국 법인 R&D 부부장을 거쳐 2020년부터는 글로벌연구소장을 맡아왔다. 대표적인 히트 상품으로는 꼬북칩, 닥터유 단백질바 등이 있다.

이 대표가 이번 인사를 통해 오리온의 대표와 글로벌연구소장을 겸직함으로써 미뤄볼 때 그룹 차원에서 R&D 역량을 높여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오리온은 올해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신제품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 초 신제품 '꼬북칩 스위트바닐라맛'을 출시했으며 '오! 감자'의 새로운 라인업인 '대왕 오! 감자 짝딱 크리미칠리소스맛'도 선보였다.

꼬북칩 스위트바닐라맛은 겹겹마다 바닐라 크림이 잘 배어있어 깊고 진한 풍미를 선사한다. 더 풍성한 식감을 위해

꼬북칩 겹 사이의 간격을 콘스프랫 대비 30% 가량 넓히고, 칩 한 개당 중량도 약 60% 늘려서 쿠키 토평까지 더했다.

소비자 조사에서도 '꼬북칩 초코츄러스'와는 또 다른 매력의 부드러운 달콤한 맛, '바닐라 크립에 코코아 쿠키 토평'은 맛있을 수밖에 없는 역대급 조합' 등 전례 없는 호평을 받았다.

'오! 감자'의 경우 중국 시장에서 마라새우맛, 토마토맛, 스테이크맛 등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춘 다양한 제품이 판매 중이며 연 2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는 등 글로벌 인기 스낵으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법인이 R&D 강화에 집중한다면, 해외법인은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해 현지화 체제를 한층 강화한다. 오리온은 일찍이 초코파이를 앞세워 해외 시장에 진출했으며 해외 매출 비중이 국내를 넘어섰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누적 매출에서 국내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4%에 불과한 반면, 해외 매출은 66% 비중을 차지한다. 오리온은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에서 11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해외법인 중 매출 규모가 가장

큰 중국의 경우 지난해 현지인 공장장을 배출한 이후 신규 본부장과 팀장 등 역시 현지인으로 발탁했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지 직원이 대거 고용된 중국 법인은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한 김재신 신임 대표가 통솔한다.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매출 규모가 큰 베트남은 박세열 신임 대표가 이끈다. 올해 베트남 법인은 글로벌 식품 제조사 문델레즈를 제치고 1위 식품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9년 쌀과자, 양산빵 등으로 카테고리를 확장한 오리온은 지난해 12월 견과 브랜드 '속포'를 출시하면서 현지 견과 시장에도 진출했다.

베트남의 2020년 기준 견과류 소매 시장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하며, 6.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SNS에서 견과류 등을 활용한 건강식단을 활발히 공유하고, 간식으로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출시 배경이다.

이밖에 인도, 러시아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 오리온은 인도 법인을 통해 17조원 규모의 현지 제과 시장을 본

격 공략할 방침이다. 인도에서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초코파이 딸기잼'은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오리온 측은 세계 2위의 인구 대국인 인도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라며 철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현지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는 다양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러시아 법인에서는 지난해 11월 기준 연매출이 사상 처음 1000억원을 돌파했다.

해외 시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한편, 국내에서는 비용 효율화 작업을 전개, 제조원가를 상승폭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올초부터 치솟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은 제과 가격을 동결한다. 업계에서는 오리온이 9년째 제품 가격을 동결하면서도 높은 이익을 내는 비결로 정가 판매 구조와 통합 관리 시스템을 꼽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인사·오퍼레이션·법인, 3인 각자 대표체제 운영

쿠광폴필먼트서비스, 대표 3인 위촉 전문성 기반 빠른 의사결정·효율경영

쿠광물류자회사 쿠광폴필먼트서비스가 새해부터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한다. 쿠광폴필먼트서비스는 엄성환 인사부문 대표이사, 정종철 법무부문 대표이사, 무노스 제프리 로렌스 오퍼레이션부문 대표이사 3인을 각 부문에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쿠광폴필먼트서비스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빠른 의사 결정과 효율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고객 감동을 실현하는데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국 물류 인프라 확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업계 최고 수준이자 가장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 다양한 영역에 투자와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엄성환 인사부문 대표이사



무노스 제프리 로렌스 오퍼레이션부문 대표이사



정종철 법무부문 대표이사

쿠광은 2020년 이후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2500억원을 투자했다. 쿠광폴필먼트서비스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사고율을 30% 줄였다.

엄성환 쿠광폴필먼트서비스 인사부문 대표이사는 20여년간 채용, 인재 양성, 조직 개발 등 인사 전반에 걸쳐 다

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지난 2015년 쿠광에 합류해 2018년부터 쿠광폴필먼트서비스의 인사부문 총괄 리더로 근무해왔다. 쿠광 입사 전에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잡코리아에서 HR 매니저로 재직했다.

무노스 제프리 로렌스 오퍼레이션부문

대표이사는 2018년 쿠광에 합류해 2019년 9월부터 물류 오퍼레이션 총괄 리더를 맡았다. 쿠광 전에는 글로벌 기업 아마존에서 10년 넘게 다양한 직책을 역임했고 오퍼레이션 관련 경력이 주를 이룬다.

쿠광폴필먼트서비스는 정종철 전 김안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법무부문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정 대표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1년부터 직전까지 김안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법률 변호사로 활동하며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문화 변화관리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담당해 왔다. 정 대표이사는 쿠광폴필먼트서비스의 기업법무 전반을 담당하고 컴플라이언스 및 업무환경, 안전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강화를 위한 법률 지원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

GS샵 사파라이브 주문액 550억원 기록

GS샵은 18일 지난해 4월 대대적으로 개편한 '사파라이브'가 2021년말 기준 주문액 약 55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간 주문액으로, 개편 전 대비 8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파라이브는 평일 방송횟수를 기존 하루 2회에서 13회까지 확대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왔다. 생방송 시청자 수(UV)는 최대 8만명을 기록하고, 방송 1회당 고객 채팅 건수는 기존 최소 50건에서 최근 700건까지 1300% 폭증했다. 이 같은 성장세는 TV홈쇼핑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한 검증된 PD와 쇼핑호스트가 참여해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비밀코드' 프로모션 등 다양한 마케팅 성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서현 기자

쿠광이츠서비스, 김명규 대표이사 선임

2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 출범

쿠광이츠서비스가 2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출범하며, 김명규 대표이사(사진)를 새로 선임했다고 18일 밝혔다.

신임 김 대표이사는 쿠광에서 물류 정책실장을 맡으며 중장기 전략 기획, 지역투자 및 일자리 창출, 서비스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등을 담당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신임 김 대표이사는 배달물류 관리자(고객과 상점주, 배달파트너 등)의 안전하고 편리한 운영을 정착시키고, 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



선사항들에 대해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쿠광이츠서비스 출범 이후 쿠광이츠서비스를 총괄했던 장기환 대표이사는 치타배달 등 특화 서비스 강화와 사업의 성장을 주도하게 된다. 한편 같은 날 쿠광폴필먼트서비스도 엄성환 인사부문 대표이사, 정종철 법무부문 대표이사, 무노스 제프리 로렌스 오퍼레이션부문 대표이사 3인이 각자 주요 부문을 맡아 시너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서현 기자

라이브11 내 '펫취존중·11책방' 코너 신설

11번가, 힐링형 신규예능 확대

11번가가 '라이브11(LIVE11)' 내 '힐링형' 신규 예능 코너를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방송 시간 내내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펫취존중', 책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11책방' 코너를 신규 편성했다. 예능형 고정 코너들을 지속 확대해 11번가 라이브방송의 고정 시청자를 늘린다는 목표다.

반려동물이 출연진으로 등장하는 '펫취존중' 방송은 18일 오전 11시 첫 정규방송을 진행하며, 매일 1~2차례씩 고정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펫취존중' 방송은 지난 5회의 파일럿

방송 동안 누적 시청수 38만 뷰, 3,400여 개의 실시간 댓글 수를 기록했다.

YES24와 공동기획한 '11책방'은 독서문화 전파를 목적으로 베스트셀러부터 쇼호스트 추천 도서까지 다양한 책들을 누구나 읽기 쉽게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매일 첫번째 월요일 오후 8시 방송된다.

'라이브11'은 현재 하루 4~6번의 방송을 통해 11번가가 자체 기획한 7개의 예능형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틸업 ▲핀덴 리뷰 ▲생(生)썸 ▲육아 브레이크 ▲일일포차 등으로, 지난해 3월 3개 코너를 시작으로 현재 7개 까지 늘었다. /김서현 기자

홈플러스, 가치소비 설 선물 'ESG 선물세트' 출시

홈플러스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가치 소비 인기에 올 설은 관련 선물세트로 준비했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동원 건강한 ESG 선물세트 53호'를 업계 단독으로 출시했다. 해당 선물 세트는 MSC 인증을 받은 '동원 MSC 참치'를 포함한다. 동원 MSC 참치는 국내 캔 참치 품목 최초로 지속 가능한 어업에 부여하는 MSC 인증을 획득한 상품이다. 함께 구성한 리침 더블 라이트는 캔햄 시장 점유율 상위 3개 상품의 평균 함량보다 나트륨과 지방을 각각 25% 줄여 칼로리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상품 개발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자원 사용도 줄였다. 기존 플라스틱 용기를 재생 종이로 교체하고, 포장용 종이 가방으로 구성했다. /김서현 기자

카페에서 립스틱을 판다고?... 참신하긴 한데 전문성 '글썄'

유통가 너도나도 뷰티시장 진출
할리스 화장품 사업 뛰어들어
단기간 관점 접근 우려 목소리



'할리스 레드 벨벳 립' 제품 이미지. /할리스

유통이나 패션 기업 등에서 뷰티를 신사업으로 도입한 사례가 외식업까지 확대되는 등 화장품 브랜드 론칭이 영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보다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페 브랜드 할리스가 뷰티 굿즈인 '할리스 레드 벨벳 립'을 공개하면서 유통·뷰티업계 및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할리스가 립 메이크업 제품 출시를 기점으로 화장품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할리스는 최근 카페를 넘어선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를 표방하며 캠핑, 골프, 조명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굿즈를 내놓았다. 이번에 내놓은 '할리스 레드 벨벳 립'은 할리스가 최초

로 선보이는 립스틱 굿즈로 할리스 공간의 따뜻한 분위기를 모티브로 개발했다. 커피를 마실때의 입술에 닿는 부드러운 촉감과 느낌을 립스틱으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할리스 관계자는 "립스틱은 손쉽게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뷰티 아이템 중 하나로, '할리스 레드 벨벳 립'을 통해 할리스가 가진 분위기를 소비자들이 일상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할리스의 첫 립스틱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외식업체도 뷰티 제품 판매에 나선 것은 코스맥스를 비롯한 제조사가 있고, 타깃층인 MZ 세대를 공략 가능하며, 원가가 저렴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할리스의 해당 제품도 화장품 제조업자개발생산(ODM) 업체인 코스맥스가 제조했다. 또한 화장품은 대부분의 유통사가 주요 타깃 고객 및 잠재 미래 고객으로 삼고 있는 MZ 세대가 비교적 친밀하게 사용하는 소비재 중 하나다.

화장품 전문가는 "화장품의 재고 소진이 다른 물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원가는 판매액의 10~15% 수준으로 이익률 역시 높다"는 것 역시 화장품 신사업 진출 증가의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전문성이나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만한 개성을 지니지 못하면 포화 상태인 뷰티 시장에서 오랜 기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일례로 패션 기업인 코오롱FnC에 서는 대세 콘셉트로 자리 잡은 '클린 뷰티'를 내세우며 재작년 탄생시킨 라이브와이즈 브랜드 운영을 이달 말 마무리 짓는다. 지난 11월부터 오프라인에서 철수가 진행 중이며 화장품 시장이 치열하다보니 내린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이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공들여 만든 화장품 브랜드 '스톤브릭'은 레코 콘셉트로 주목 받았지만 3년도 못가 시장에서 철수했다. 신선함으로 소비자들의 주목을 끌었지만 장기적으로 가져갈만한 콘텐츠나 기능성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뷰티 분야 화장품의 경우 브랜드 안착에 최소 3년에서 5년이 필요하지만,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영업을 종료한 브랜드들이 생기면서 화장품 사업을 쉽게 보거나 장기적이 아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대웅제약

브이올렛 론칭 심포지엄서 턱밀 지방 개선 시술법 공유

대웅제약이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브이올렛의 우수성과 효과적인 시술법을 알렸다.

대웅제약은 지난 15~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브이올렛 론칭 심포지엄 서울'을 의료진 80여명의 참가 속에 성료했다고 18일 밝혔다.

브이올렛 론칭을 기념해 많은 의료진들이 축하영상을 보내오기도 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턱밀 지방 개선 시술에 필요한 학술강의가 진행됐다. 한승호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턱밀 부위 해부학 강의'를 맡아 의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인 시술부위의 해부학적 지식을 공유했다. 이양원 건국대 병원 피부과 교수는 브이올렛 3상 임상결과 및 케이스 리뷰'를 통해 임상 데이터와 사례를 기반으로 브이올렛의 턱밀 지방 개선 효과를 리뷰했다.

/이세경 기자

LF, 모든 유통·판매 채널에 RFID 도입

(무선 주파수 인식)

온·오프라인 쇼핑 연계 강화
재고 관리 효율성 향상 기대

LF가 차별화된 온·오프라인 연계 쇼핑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제품 재고 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전 매장에 RFID(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LF가 전자 차원에서 도입한 RFID 기술은 무선 주파수를 통해 수 미터의 원거리에서도 상품에 부착된 태그를 인식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비접촉식 정보인식 기술이며 개별 상품

별로 별도의 아이디를 부여해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에 활용되던 바코드 방식에서는 불가능했던 개별 상품 단품별 관리뿐 아니라 재고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켜 생산공장부터 매장까지 공급망 전반에서 실시간으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조 경쟁력 제고부터 소비자 경험 개선까지 RFID 기술의 이점이 증명되면서 전 세계 다양한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LF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해

지스, 닥스, 질스튜디오트뉴욕 등 직접 기획·전개하는 모든 브랜드의 상품 재고 관리 정확도를 99.9%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개별 발급된 고유번호를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도착하기까지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서의 이력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 및 수집한다.

이로써 플래그십 스토어부터 가두 매장, 아울렛 매장 등 모든 판매 채널에서 결품율을 최소화하고 재고 가용성을 높이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LF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보다 쾌적하면서도 풍부한 쇼핑 경험을 제공하는 계획이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의 재고 현황을 빠르게 확인해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거나 함께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을 추천해줄 뿐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전문몰인 LF몰에서 고른 제품을 매장에 방문해 입어볼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이며 O4O 쇼핑 경험을 극대화시킬 예정이다.

/원은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씨젠, 한 달간 이스라엘에 진단시약 510만명분 수출

분자진단 전문기업 씨젠이 지난 12월 말부터 이달까지 약 한달 동안 510만명이 검사 받을 수 있는 분량의 진단시약을 이스라엘에 수출한다. 지난 달 170만명분에 이어, 이번 달에 340만명분이 예정돼 있다.

이스라엘의 진단시약 수요가 급증한 것은 최근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명을 넘어서는 등 연일 최고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인구가 약 900만명임을 감안하면, 씨젠의 최근 한달간 수출 물량은 전체 인구의 약 57%가 검사 받을 수 있는 양이다. 이스라엘에서는 최근 겨울철 독감환자까지 증가하고 있다. 현지에서는 독감(플루)과 코로나19를 합친 '플루로나'라는 용어까지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와 다른 호흡기질환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세경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백신 임상 3상 모집 마쳐

시험 대상자 6개국 4037명 모집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 L하우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마지막 임상이 시작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GBP510'의 임상 3상 시험 대상자 모집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GBP510의 임상 3상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 성인 총 4037명으로 국내에서 570명, 유럽, 동남아, 오세아니아 등 해외 5개국에서 현지인 3467명이 모집됐다. 국내 임상은 고려대 구로병원 등 총 16개 기관이, 해외 임상은 비영리 국제기구인 국제백신연구소(IVI)가 협력해 진행 중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임상 3상 시험 첫 투약을 개시한 후 국내 대상자에 대한 투약은 2차까지 모두 마친 상태다. 국내 대상자의 임상 검체는 현재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과 IVI를 통해 중화항체를 측정하는 효능 평가 단계에 진입

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IVI는 해외 임상의 검체도 순차적으로 수령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GBP510의 국내 신속 허가과 세계보건기구(WHO) 사전적격성평가(PQ) 인증, 해외 국가별 긴급사용허가 획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제기구 전염병 대비혁신연합(CEPI)의 'Wave2' (차세대 코로나19백신) 프로젝트에 선정된 GBP510은 개발 완료 후 수억회 물

량이 공정하게 공급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주기적으로 출현하는 다양한 변이주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부스터샷 임상도 진행 중이다. ▲GBP510 1/2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6개월 후 GBP510을 추가 접종하는 자체 임상과 ▲다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약 550여 명에게 GBP510을 추가 접종하는 질병관리청 주도 연구자 임상 등으로 부스터샷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하는 중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서울신라호텔

상시 운영 '키즈 라운지' 오픈

특별 시즌에만 임시 키즈 라운지를 운영했던 서울신라호텔이 상시 운영되는 키즈 라운지(사진)를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어린 자녀와의 나들이에 신경 쓸 것이 많아진 부모들이 방역과 놀이, 교육에 대한 고민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다. 호텔 본관 5층에 위치한 키즈 라운지는 서울신라호텔 '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의 고급스러운 공간 연출을 모티브로 어린이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요소들을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라운지는 책장 가득 어린이 도서와 유명 아티스트의 관화, 오브제를 접할 수 있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키즈 라운지는 매주 월~금요일에는 투숙객에게 무료로 개방되며, 매주 주말에는 '리드 앤 플레이 키즈' 패키지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원은미 기자

동원F&B

'양반 인생맛집 만두' 2종

동원F&B가 만두피를 황금비율 17%로 빛낸 '양반 인생맛집 만두' 2종(고기, 김치·샤진)을 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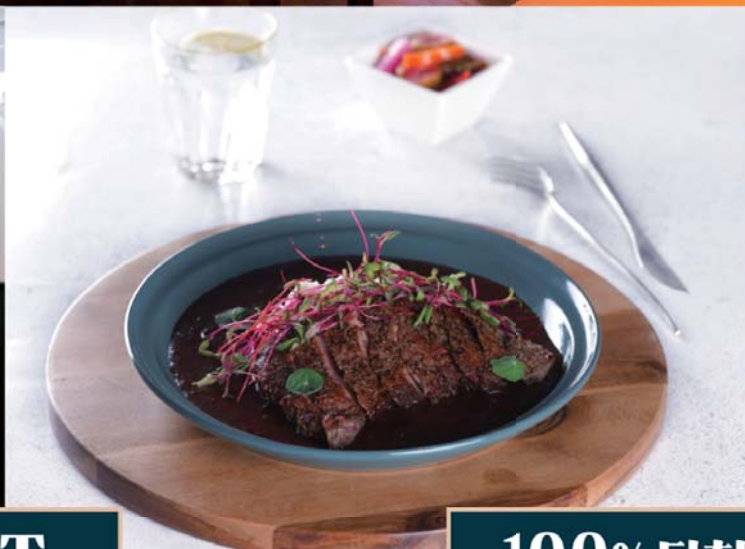
'양반 인생맛집 만두' 2종은 만두피의 비율을 전체 만두의 17%까지 줄이고 만두소를 가득 채운 프리미엄 냉동만두 제품이다. 동원F&B는 전국의 수많은 만두 맛집을 탐방해 만두피의 황금비율 17%를 개발했다. 만두피가 얇으면서도 쉽게 찢어지지 않아 식감이 쫄깃하고, 만두소를 듬뿍 넣어 풍미가 살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Neighborly Wine Shop & Bar



하루일과가 마포에 왔습니다!



OPEN EVENT

15만원 이상 **전동 와인 오프너**
구매 고객 **증정**

20만원 이상 **고급 와인잔 세트**
구매 고객 **증정**

100% 당첨 스크래치 복권 이벤트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
기간: 2022년 1월~소진시

- 1등 웨이퍼 힐 사이드 셀렉트(1), 2등 몬테스 퍼플엔젤(4),
- 3등 10만원 식사권(10), 4등 IVV 보르도 글라스 1pc(100),
- 5등 핸드폰 무선충전거치대(100), 6등 커피츄(185)

임시
영업시간

17:00~01:00 → 13:00~21:00

*일요일 휴무

*고객의 안전을 위해 정부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예약문의 | 070-4144-3358

10% 할인권

할인권 사용 기간 : 2022.01.31까지

Bar 이용 시 사용가능



현대차 정몽구 재단, 농산어촌 교육격차 해소 앞장

현대차 정몽구 재단은 메타버스를 활용해 오는 28일까지 2주간 농산어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대학생 온라인 봉사단 '온드림스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19기 온드림스쿨 대학생 봉사단은 30개팀 120명이다. 대학생 봉사단은 농산어촌 초등학교의 30개 학급 360명과 매칭돼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다. /정몽구재단



NH농협은행, ESG 홍보모델에 배우 이미지 위촉

NH농협은행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중인 방송인 이미지 씨를 ESG 홍보모델로 위촉했다고 18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이미지 씨와 함께 ▲ESG 캠페인 홍보영상 ▲ESG 금융상품 홍보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해 농협은행의 ESG 경영을 홍보할 계획이다. 권준학 농협은행(오른쪽)이 방송인 이미지 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하나금융그룹 LPGA 리더아 고 공식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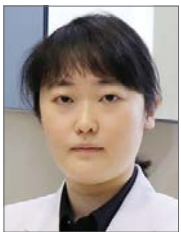
하나금융그룹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16승을 기록 중인 리더아 고(Lydia Ko·24·사진)와 공식 메인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년간 하나캐피탈의 서비스 후원을 받은 리더아 고는 2021년 LPGA투어와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LET)에서 각각 우승하였고, 도쿄 올림픽 여자골프 동메달, LPGA 베어 트로피(최저타 상)를 수상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동국제강 송원문화재단, 19기 장학생 증서 수여식

동국제강 산하 송원문화재단이 18일 서울 을지로 본사 페럼타워에서 '제 19기 송원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송원문화재단은 동국제강이 1996년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그간 장학 사업, 문화 사업, 지역 복지 사업 등을 펼쳐왔다. 장세욱 송원문화재단 이사장(왼쪽)이 19기 송원장학생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국제강

이대비뇨기병원 女 비뇨학 전문 신정현 영입



오는 2월 개원을 앞둔 이대비뇨기병원이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임상과 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는 차세대 여성 비뇨의학과 전문의인 신정현 교수(사진)를 전격 영입했다고 18일 밝혔다. 1월 이대비뇨기병원에 합류한 신 교수는 비뇨의학계에서는 임상과 연구 양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는 '슈퍼 루키'로 꼽힌다. /이세경 기자 seilee@

SW 취업 등용문... 삼성 SSAFY 1150명 신규 입학

올 7기 신입생 규모 역대 최대 5개 캠퍼서서 1600시간 교육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가 7기를 새로 맞이했다.

삼성은 18일 서울 강남구 SSAFY Y 서울 캠퍼스'에서 7기 입학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신입생 규모는 1150명으로 역대 최대다. 1000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2018년 12월 1기 입학생 500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규모다. 삼성은 SSAFY 규모를 늘리기로 약속하고 입학생을 꾸준히 늘려왔다.

이번 입학식은 코로나19를 고려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됐다. 입학생 50명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박학규 사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 더불어민주당이



SSAFY 교육 모습 /삼성

수진 의원,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참석했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여러분의 열정에 수준 높은 교육과정이 더해져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더 많은 청년이 직무 역량을 쌓고, 실무경험을 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SSAFY에서 1년간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진출해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박학규 사장은 "소프트웨어 영역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생활가전사업부이재승 사장은 "소프트웨어 영역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드는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입학생들은 서울과 대전, 광주와 구미 및 부산·울산·경남 등 전국 5

개 캠퍼스에서 1년간 매일 8시간씩 총 1600시간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된다. 매달 100만원 교육 지원금도 지급된다. 교육생간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기업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개발자로 양성,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모의면접과 자기소개서 작성, 진로 상담 등 지원과 채용 박람회, 기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취업률도 높다. 5기까지 2785명이 수료, 2199명이 취업해 79%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뿐 아니라 카카오와 네이버, 롯데정보통신 등 IT 기업과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현대모비스 등 금융과 산업계 등 643개 기업에 취업했다. 서류심사 면제와 가점을 주는 등 취업 우대 기업도 100여개에 달한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LG전자노조 '사회적 책임' 성과 국제사회 인정

UN '특별 협의지위' 획득 국내 단위 노조로 첫 인증



LGE USR

LG전자 노동조합 USR 로고 /LG전자

LG전자노동조합이 성실하게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LG전자는 지난 12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에서 '특별 협의지위'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활동 분야 중 특정 영역에서 역할을 갖춘 단체로 특별 협의지위를

LG전자노조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독자적인 규약과 조직을 갖춰 운영되는 단위노동조합으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지위를 얻은 것은 국내 단위노조 중에서는 처음이다.

LG전자노동조합은 앞으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와 산하 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회의나 행사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USR(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고 건전

한 노동문화를 전파하는 데 기여할 계획이다.

또 LG전자의 ESG 경영을 함께 실천함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높일 예정이다.

앞서 LG전자는 2010년 1월 국내 기업최초로 'USR' 현장을 선포하고,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지원, 해외구호활동 등 노동조합 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신장뿐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김재용 기자

"위기 대응역량 강화... 상생·ESG경영 선도"

권남주 캠코 사장 취임 100년 기업 성장방안 제시



자산관리전문기관인 캠코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멈춤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어 캠코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100년 기업으로 지속성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권남주 전 부사장(사진)이 신임 사장으로 취임했다고 18일 밝혔다.

권 사장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캠코 창립 60주년을 맞는 중요한 시기에 사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적

위기극복에 앞장서서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위기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가계, '기업', '공공'의 전 사업 부문에서 균형 있는 성장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는 한편,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전문성 강화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 전환,

에너지 전환, D·N·A 중심의 디지털 전환 등 대전환의 시대와 마주한 지금,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여 미래혁신을 선도하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안전경영" 최우선 원칙에 바탕을 둔 전사적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윤리경영'의 실천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을 확대해 '상생경영'과 'ESG경영'을 선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대한항공, 서울관광 활성화 기여 '서울시 표창'

항공기 AVOD로 관광영상 소개

대한항공이 항공기 주문형오디오 비디오(AVOD)로 서울의 다채로운 관광 영상을 세계인에게 소개해 서울 관광 이미지를 높인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2021년 서울시 민관협력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를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발굴을 위해 지난해 3월 서울관광재단과 협력을 맺고 국제선

노선 기내 AVOD를 통해 서울 관광 유튜브 채널 '비짓서울 TV'의 '시네마틱 서울', '서울스토리', '서울 밤상챌린지' 등 서울관광재단이 제작한 14편의 콘텐츠를 상영해왔다.

대한항공 AVOD로 제공되는 서울 관광 콘텐츠는 외국인에게 서울 관광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발휘하는 등 민관협력의 우수사례로 뽑혀 이번에서 서울시로부터 표창을 수여하게 됐다.

대한항공은 2022년에도 서울관광

을 알리는 새롭고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를 AVOD로 상영해 서울 관광 활성화에 더욱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달 한국관광공사와 기내 AVOD에 한국 관광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동시에 스카이프스 회원 소식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 기내 잡지 모닝칼에 우리나라 관광 콘텐츠를 노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맺는 등 해외 여행객 유치 및 국가 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인사

- ◆통계청 ◇과장급 인사 △인구동향과장 노형준
- ◆한국연구재단 ◇본부장 선임 △국책연구본부장 유지범

부음

▲이용길씨 별세, 김현숙씨 남편상, 이은진·이현진(메트로신문 정책사회부 기자)씨 부친상, 서승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리더)·박병록(메크항암제사업부차장)씨 장인상=17일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5시30분, 031-382-5004

▲최석보씨 별세, 최기수·황수(前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홍수·신자·희자 부친상, 원경희·김윤아·임성현 시부상, 임종남·이우성 장인상=18일 오전 5시, 영산포농협 장례식장 VIP(1층), 발인 20일 오전 10시, 장지 전남 나주시 다시면 선영, 061-334-4440

일상다반사



연운열 교수의
치유영양학

◆송농과 커피

누룽지는 밥솥의 바닥에 주로 생기는데 밥을 덜어내고 물을 부으면 곧바로 송농이 된다. 송농은 역사적으로 우리의 국민음료였다. 한중일 가운데 우리나라는 송농을 즐겨 마셨기 때문에 차 문화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을 거라는 설도 있다.

누룽지와 송농의 구수한 맛은 쌀에 함유된 당류와 단백질 성분이 취반시 가열에 의한 '마이아르반응' 현상 때문이다. '마이아르'반응은 환원당과 아미노산이 만나서 일으키는 연쇄적인 화학반응이다. 누룽지 색깔이 갈색에 가까울수록 구수해지는 이유도 멜라노이딘이라는 갈색의 착색물질이 구수한 냄새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민국은 커피공화국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커피 사랑이 깊다.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265억잔으로 국민 1인당 연평균 512잔이다. 전 국민이 매일 한 잔 반을 마신 셈이다.

국제 커피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커

피 수입량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은 세계 7위로 기록된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커피를 마셨다고 알려진 고종으로부터 약 130년이 지난 지금 송농은 사라지고 커피가 필수 음료가 됐다.

◆차와 항산화 기능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의 차(茶) 류는 침출 차, 액상 차, 고형차로 구분하고 있다. 침출차는 주로 녹차, 홍차, 허브차, 곡물차 등을 말하며 사용의 편의성에 의해 잎차보다 티백 제품을 선호한다.

한편, 가공방법에 따라 발효를 하지 않은 녹차와 발효의 정도에 따라 전(前) 발효 차에 해당하는 반발효차(청차, 우롱차), 약 발효차(백차), 완전 발효차(홍차)와 후(後) 발효차(황차, 흑차)로 구분할 수 있다.

전(前) 발효차는 찻잎에 포함된 효소에 의해 발효가 이루어지고 후(後) 발효차는 미생물을 이용하여 발효, 숙성이 진행되어 더욱 깊고 깊은 향취를 나타낸다. 보이차(푸얼차)는 중국 윈난성(云南省) 보이지역에서 명칭이 유래되었으며 중국의 10대 명차 중의 하나다.

녹차에는 카테킨이 풍부하지만 홍차는 제조단계에서 카테킨의 산화작용에 의해 카테킨류가 감소되는 반면 폴리페놀이 다

량 생성된다.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가 '활성산소'로 변하게 되면 인체 내에서 세포의 노화와 장애를 유발한다. 활성산소는 인체나 식품 중에 존재하는 지질을 산화시켜 과산화 지질로 변성시키고 인체 내에서는 DNA에 손상을 주어 세포의 돌연변이와 암을 유발하고 뇌와 심혈관계에 병리학적 교란을 일으키는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천연물에서 유래하는 페놀성 화합물은 항산화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활성산소와 쉽게 반응한다.

페놀성 화합물은 항균, 항알레르기, 항산화, 항암, 충치예방, 심장 질환 및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생리활성 물질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진 2차 대사산물 중의 하나다. 차의 '카테킨' 화합물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고, 항산화, 항암, 항균작용, 충치예방 및 미백효과까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올해는 1월 22일이 24절기중 눈이 가장 많이 온다는 대한(大寒)이다. 코로나팬데믹 시기에 한겨울 따듯하게 마시는 음다(飲茶)를 통해서 체내 활성산소를 말끔히 제거해 보자. /송의여자대학교 식품영양과

국민은 '공감'을 원한다



기지수첩
최영훈
(정치경제부)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따뜻한 대통령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전한 약속이다. 전임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통의 아이콘'으로 비판받아온 만큼, 문 대통령은 달라야 했기 때문이다.

취임한 지 4년 8개월 동안 문 대통령은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에 직접 방문했고, 무작위로 선발된 국민과 대화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언론과 소통도 했다. 국내 언론과 기자회견 한 횟수는 9차례(2022년

1월 18일 기준)에 이른다. 질의응답을 한 대통령 단독 기자회견 횟수로만 보면 전임인 박 전 대통령(3회)보다 많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소통하려는 노력에 국민은 공감할까. 문 대통령이 임기 동안 성과를 평가한 데 대해서도 '공감' 못하는 국민은 상당하다. 청와대가 밝힌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민생 경제' 분야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6일 발간한 이슈브리프를 통해 밝힌 문재인 정부 연평균 노동소득분배율은 64.9%다. 전체 국민 소득에서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노무현(60.0%)·이명박(60.3%)·박근혜(62.1%) 정부를 거치며 늘어났다.

그럼에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직격탄을 맞아 힘들어한다. 노동소득분배

율이 오른 것에 국민은 '공감'하지 못하는 셈이다.

문 대통령에 기대를 버린 국민도 있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아들은 18일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없다”며 문 대통령의 편지를 반납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측이 '정부가 패소해도 항소를 자제하라'는 문 대통령 지시와 달리,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한 유족 중 정보공개청구 소송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하면서다. 문 대통령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한 약속도 사실상 깨진 셈이다.

국민은 소통을 통해 대통령이 공감하길 원한다. 여러 성과를 내세울 때 최소한 국민이 공감하는 수준에서 말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셈이다. 남은 임기 4개월 동안만이라도 문 대통령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게 노력했으면 한다. /choiyoungr@

오늘의 운세 1월 19일 (음 12월 17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는데. **48년생** 백만 송이장미를 받는 꿈을 꾸다. **60년생** 작은 것에 집착 말고 일만보고 진행. **72년생**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큰 자산이다. **84년생** 한심하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행운을 기다리는 것.
- 37년생** 뒤늦은 투자는 인생의 먹구름이다. **49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으로 나서자. **61년생** 기대가 커서 서운함도 크다. **73년생**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관심을 갖는다. **85년생** 이직이나 진로변경은 불리하니 신중하게 고민해야.
- 38년생** 사람은 누구나 각각의 행복 불행의 운명이 있다. **50년생**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니 자중. **62년생** 마음이 울적해도 웃으면 복이 온다. **74년생** 남의 실수가 내겐 기회로 오지만 웬지 불행. **86년생** 밤이 길어도 새벽은 반드시 온다.
- 39년생** 큰 흐름을 벗어나지 말고 움직여라. **51년생** 지치고 피곤한 날이니 배우자의 도움이 절실. **63년생** 동서남북으로 운이 열렸으니 업무를 열심히 하라. **75년생** 하나를 주고 둘을 얻는다. **87년생** 눈에 넘치는 사람과는 오래가기 힘들다.
- 40년생**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지 말자. **52년생** 자손이 승진하고 집안에 경사가 있다. **64년생** 현재의 재물이 계속 있기를 바란다면 겸손의 미덕으로 행동. **76년생** 받는 것도 값야 할 때가 온다. **88년생** 눈앞의 실속보다 내일을 중시.
- 41년생** 늦더라도 어떤 인생이든 꽃피는 시기는 있다. **53년생** 사랑이 부족하다면 처음부터 반려권을 절대 키우지 마라. **65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77년생** 격한 말은 서로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 **89년생** 가족 간에도 나누어야.
- 42년생** 탁월한 건식이 나를 지탱해왔다. **54년생** 다른데 눈 돌리기보다 평소 부족함을 채우도록. **66년생** 닭피와의 거래는 손조롭다. **78년생** 삼각관계에 간교함이 있어 니의지가 필요하다. **90년생** 한눈에 반하는 것은 식는 것도 순식간일 것.
- 43년생** 돌아봄이 없는 사람일수록 화를 잘 내는 법. **55년생** 남이 처된 밥상이 불편하다. **67년생** 동료에게 양보할 일이 생긴다. **79년생** 이별이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것. **91년생** 지나친 욕심으로 현재 있는 것도 잃지 않기를.
- 44년생** 나이 들수록 자랑보다는 지갑은 열어야 할 터. **56년생** 자식의 도움에 감사할 줄도 알아라. **68년생** 혈관질환이 의심되니 건강검진을 받자. **80년생** 타인의 시선에 얽매며 따라가다 빗난 진다. **92년생**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나려는 격.
- 45년생** 가야 할 길은 먼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57년생** 재혼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더 늦기 전에. **69년생** 마음이 편안해야 일도 잘 풀린다. **81년생** 일을 자꾸 만들 어 크게 벌리지 않도록. **93년생** 손재수가 있으니 세금을 미리 내자.
- 46년생** 언제 먹구름이 올지 모르니 더 겸손. **58년생** 금할수록 서두르지 마라. **70년생** 직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내 실수도 알려진다. **82년생** 발을 두려워하면 좋은 꿈을 모을 수가 없다. **94년생** 2보 전진을 위해 1보 후퇴하는 지혜를.
- 47년생** 가장 중요한 것은 말버네니 건강유지. **59년생** 유혹이 많은 날이니 의리가 필수. **71년생** 필요 이상의 의미 부여는 상황을 왜곡시킨다. **83년생** 결혼생활은 양보와 이해로 이루어진다. **95년생** 참모(參謀)가 제격이고 자수성가의 표본이다.

김상회의 四季 도전, 버킷리스트

인생은 정의 내리기 어렵다. 붓다는 존재 자체를 '고(苦)'라고 규정했다. 그래서 붓다는 철저하게 존재함으로써 생겨나는 괴로움을 해소하고 벗어나는 가르침을 펼쳤다. 우주의 시원을 묻거나 죽은 다음의 세상은 어떠한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무기(無記)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다. 몰라서 대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현명하지 못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질문에는 침묵으로써 대답을 대신한 것이다. 어쨌든 삶의 본질이 고라 할지라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나야 한다.

필자가 생각하는 성공적인 삶 후회 없는 삶은 움직일 수 있고 힘이 남아 있는 한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 몸을 움직이든 정신을 풍요롭게 하든 일을 하며 오늘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삶은 헛되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생산적인 노동만 일이 아니기에 이런 이유로 나이가 많던 적던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는 필요하다. 평생의 리스트도 있을 수 있고 해마다의 리스트도 있을 것이다. 해보지 않은 일을 해보는 것도 도전이다. “도전하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도 일을 계속하라. 인간은 일을 포기하면 죽고 만다.” 유명한 오토바이 제조회사 스즈키를 이끌어 온 스즈키 오사무 회장이 91세로 물러나며 직원들에게 당부한 퇴임사의 내용이라고 한다.

그가 얘기한 일이라는 것은 보상을 받는 육체적 노동만이 아닌 자아의 실현도 포함한 것이리라. 준족사장판(駿足思長坂)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잘 달리는 말이 언덕에서 힘껏 달려보고 싶다는 뜻이다. 비록 내가 준마는 아닐지라도 조건이 꼭 닿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작은 자량(自量)일지라도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 해보는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해도 좋을 것이다. 과시가 아닌 자유를 위함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형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자극하는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6	9
	3		6		7
5	8		4		3
7			6	4	
	2	4			
6			8	9	
1	6		3		8
	5		2		9
				5	7

7					4
4	5		1		7
		3			9
		7	6	3	
			2	7	
	4		3		2
6	1	3	7	5	4
		6	4		
	4	9	1	7	

http://argo9.com

정답

9	2	5	4	1	8	6	7	3	6
6	1	8	9	2	7	4	5	8	
8	4	7	6	3	5	9	2	1	
5	8	6	7	8	2	1	4	9	
1	9	2	5	6	4	7	3	8	9
2	8	4	9	1	5	6	7	3	2
8	7	1	2	4	6	8	9	5	3
2	9	8	1	7	6	8	9	5	3
2	9	8	1	7	6	8	9	5	3
4	6	9	8	5	3	2	1	7	4

2	9	2	1	8	6	4	5	9	
1	8	5	4	7	9	8	2	6	
8	6	4	5	2	1	3	7	9	
2	7	9	6	1	5	4	8	3	
6	4	8	2	9	7	1	5	3	
5	1	8	9	4	7	2	6	3	
9	5	6	7	4	3	8	1	2	
3	2	7	9	1	8	6	5	4	
4	8	1	3	6	5	2	9	7	

과난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86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968호	

중소 26% “올 설 자금사정 ‘빨간불’... 평균 2.7억 필요”

판매부진 이유로 곤란 68.3%
은행 이용시 ‘높은 금리’ 애로
납품대금 조기회수로 자금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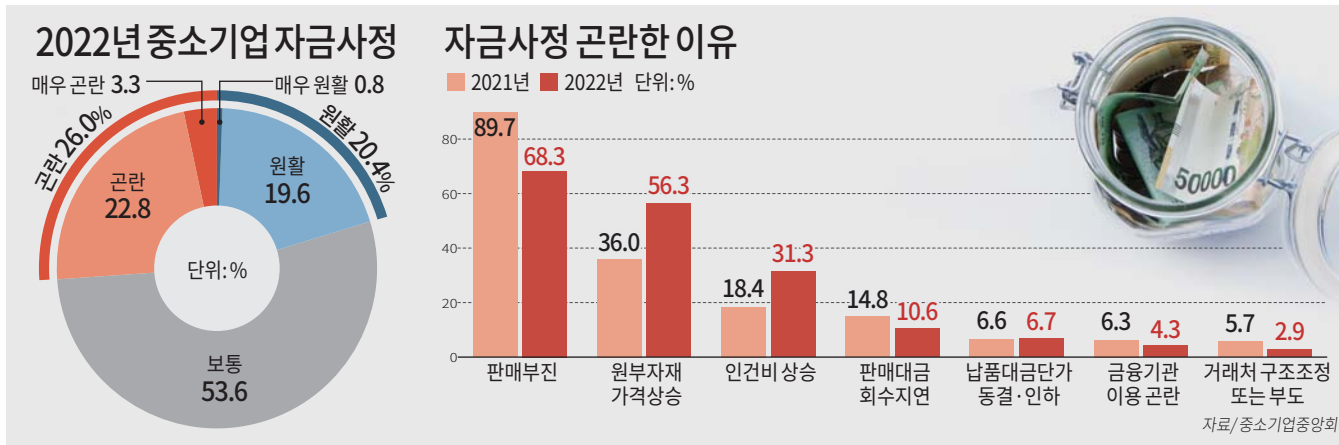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올해 설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 곤란’에 대해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는 답변이 절대적으로 많았다.

이번 설에 필요한 자금은 기업당 평균 2억7150만원으로 응답기업의 절반 가량은 ‘납품대금 조기회수’를 통해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6일부터 12일 사이 8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18일 내놓은 ‘2022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금사정이 ‘곤란하다’는 답변은 26%로 집계됐다. 이는 ‘원활하다’ (20.4%)보다 다소 높았다.

지난해 조사 결과에선 ‘곤란하다’가 38.5%, ‘원활하다’가 15.8%였다.



자금사정이 곤란한 이유(복수응답)로는 ‘판매부진’이 68.3%로 가장 많은 가운데 ▲원·부자재 가격 상승(56.3%) ▲인건비 상승(31.3%) ▲판매대금 회수지연(14.8%)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자금사정에 영향을 미쳤나’는 질문에 85.6%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이는 지난해의 ‘그렇다’ (96.1%)는 응답보다 줄어든 모습이다.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에 대해선 ‘원활함’ (23.8%)이 ‘곤란함’ (16.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 여건을 묻는 질문에선 ‘원활함’과 ‘곤란함’이 각각 20%, 24.1%여서 올해가 상대적으로 양호해진 모습이다.

은행에서 자금조달을 할 때 겪는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높은 대출금리’ (33.5%)가 1순위였다. 또 ‘과도한 서류

제출 요구’ (20.5%), ‘대출액 등 재무제표 위주의 심사’ (15.3%)도 주요 이유로 꼽혔다.

올해 설에 필요한 자금은 평균 2억 7150만원으로 지난해 설의 수요자금(2억 1490만원)보다 5660만원이 더 늘었다.

부족한 자금에 대해선 ‘납품대금 조기 회수’ (50.3%), ‘금융기관 차입’ (30.2%), ‘결제연기’ (21.1%)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금으로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는 중소기업은 37.6%에 불과했다. 20%는 ‘미정’이라고 답했다.

상여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경우 1인당 평균 액수는 44만 7000원으로 지난해 설(48만 2000원)보다 3만 5000원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설 휴무계획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95%가 설 연휴 전체인 ‘5일을 쉬겠다’고 답했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해 수출 증가 등에 따라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호전된 반면, 소기업들은 오미크론 발발로 인해 코로나19가 장기화돼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소규모일수록, 내수기업일수록 자금사정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설 자금이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기관 및 금융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중기부, 참여 대기업·공공기관 모집

ICT 스마트공장 구축 돕는다

정부, 구축비 일부 지원사업
기업 부담 줄여 생산성 개선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모집한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일환으로 주관기관인 대기업·공공기관과 도입기업인 중소·중견기업이 협업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구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 지원사업이다.

주관기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지원 비율에 따라 크게 ▲유형1(기초, 고도화1, 고도화2) ▲유형2(소기업전용)로 각각 구분했다.

‘유형1’은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부담금(주관기관+도입기업) 비율은 최소 70%다. 정부지원금(최고 기준)은 고도화 단계에 따라 기초는 4200만원, 고도화1은 1억 2000만원, 고도화2는 2억 4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민간부담금은 대기업 등 주관기관이 30% 이상 부담하고 도입기업은 최대 40%만 내는 구조여서 중소·중견기업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유형2’는 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단계 구축을 돕기 위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주관기관이 50%(각각 최대 1000만원)씩 부담해 도입기업은 별도의 구축비 부담없이 간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협업기관(재원관리, 행정지원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대중소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기금 출연에 대한 기부금 인정, 세제혜택, 동반성장지수·공공기관 평가 가점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LS일렉트릭, 포스코 등 대기업 9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23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270억원 출연금으로 약 1000개사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공공기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따라 제조현장의 생산성과 품질이 개선되고, 원가는 절감돼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이 향상됐다”면서 “이로 인해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는 줄어드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주관기관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1번가’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교원그룹, 메타버스서 서비스 펼친다

컴투스-위지웍스튜디오와 MOU

교원그룹이 메타버스 사업 강화에 나선다. 18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최근 컴투스, 위지웍스튜디오와 메타버스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3사는 이번 MOU를 통해 컴투스와 위지웍스튜디오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컴투버스(Com2Verse)’에 교원그룹의 다양한 콘텐츠를 탑재하고, 이를 위한 기술 및 서비스 개발에 적극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컴투버스’는 게임을 넘어 일, 생활, 놀이가 모두 이뤄지는 올인원 미러월드 형태의 ‘올인원(all-in-one)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가상 오피스 환경인 ‘오피스 월드’와 쇼핑 및 금융·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머셜 월드’, 게임, 음악, 영화,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



(왼쪽부터) 송재준 컴투스 대표, 장동하 교원그룹 기획조정실장, 위지웍스튜디오 박관우 대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원그룹

월드’, 이용자들의 소통 공간인 ‘커뮤니티 월드’가 도입될 예정이다.

교원그룹은 생활 밀착형 공간인 ‘커머셜 월드’ 내 주요 사업 영역의 콘텐츠를 구현하고 가상 세계에서도 이용자들이 교원그룹의 다양한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협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동반위-IBK기업은행

ESG 우수기업에 금리 우대

동반성장위원회가 IBK기업은행과 협력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손을 잡았다.

18일 동반위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은 ESG 우수 중소기업에게 금리 우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 행사 없이 서면으로 실시했다.

동반위는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통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공기관의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표를 개발하고 ESG교육 및 현장 컨설팅 후 ESG 평가결과 준수율이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김승호 기자

신세계가사

새해 맞이 정기세일 실시

신세계가사가 새해를 맞아 오는 2월 13일까지 정기세일을 실시한다.

18일 신세계가사에 따르면 이번 정기세일은 새해 집 단장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홈 인테리어의 중심인 거실부터 주방, 침실, 자녀방까지 인기 가구 및 소품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다양한 특별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와 협업한 ‘디자이너스 컬렉션’과 프렌치 모던 양식의 프리미엄 가구 컬렉션 ‘라메종’을 각각 15% 할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한샘, 자녀 성향 따라 방 공간 제안

‘아이방상담소’ 기획전

한샘이 자녀방 인테리어를 계획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 자녀의 성향, 특성 등의 유형에 따라 한샘 자녀방 공간을 제안하는 ‘아이방상담소’ 기획전을 펼친다.

18일 한샘에 따르면 온라인 홈페이지 ‘한샘닷컴’에서 진행되는 아이방상담

소 기획전은 자녀들의 각 유형에 따라 한샘 자녀방 가구로 꾸민 다섯 가지 공간을 제안한다.

기획전에선 자녀의 성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설문을 진행한다. 검사 결과에 따라 말괄량이 삤삤형, 스스로 탐험가형, 부지런한 마법사형 등 한샘이 선정한 다섯 가지 형태의 자녀 유형을 확인 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방역당국 “임신부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 ▲ 서울고검, ‘안익태 친일 의혹 제기’ 김원웅 불기소 정당 처분



- ▲ 광주 봉괴사고 희생자 발인... “HDC 정몽규 회장 처벌해야” /사진 뉴시스
- ▲ 장애인단체, 발달장애인 참정권보장 국가 상대 소송



- ▲ BTS 웹툰·웹소설, 이틀 만에 조회 수 1500만 건... 최고치 경신 /사진 뉴시스
- ▲ 중소기업 37.6% “설 상여금 지급” 평균 44만 7천원

1인 주택·CCTV·먹거리·안부 확인... 5년간 5.6조 투입

서울시 '1인가구 안심정책' 추진

5년간 1인 맞춤형주택 7만호 공급
오세훈 "실질적인 지원대책 방점
1인가구 행복해야 서울시민 행복"

서울시가 혼자 사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없애고자 오는 2026년까지 건강, 안전, 고령, 주거 4대 분야에 5조 5789억원을 투입해 '1인가구 안심정책'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집 중 한 집이 1인가구인 시대, 1인가구의 행복이 서울시민의 행복"이라며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통해 시민들이 홀로 살면서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고통과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시는 1인가구를 위한 공적 건강 돌봄 체계 구축에 나선다. 시는 돌봐줄 가족이나 지인 없이 혼자 사는 1인가구가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할 때 시간당 5000원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오세훈 시장이 18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있는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은 올해부터 무료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고, 2022년에는 연 6회의 이용 횟수 제한이 폐지된다.

시는 청년 1인가구에 저절 식재료로 구성된 '착한 먹거리 꾸러미'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혼밥'을 어려워하는 중장년층이 함께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행복한 밥상'을 운영키로 했다.

아울러 시는 1인가구 밀집 거주지역의 안전망을 강화한다. 심야시간대 방범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는 '안심마을보안관' 배치 구역을 기존 15곳에서 2026년 51개소로 3.4배 늘린다. 향후 5년간 골목길 노후 보안등을 '스마트 보안등'으로 전면 교체한다. 이는 긴급 상황 발생시 보안등이 깜빡이면서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상황을 전송,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첨단 범죄 예방 설비다.

이와 함께 시는 혼자 사는 이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지 않도록 외로운 관리에 팔을 걷어붙인다. 시는 AI가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운동 등 생활 습관을 관리해 고독감을 덜어주는 'AI 활용 중장년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를 시작한다. 기술개발을 통해 감정 인식 및 대화 정확도를 높여 2026년까지 3만명에게 이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1인가구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멘티·멘토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심리학 전공자와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멘토단이 상담을 통해 1인가구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든든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서포트한다.

마지막으로 시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들을 위해 1인가구 맞춤형 주택을 앞으로 5년간 7만호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서울에서 혼자 사는 청년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역세권 청년주택 5만7310호, 청년 매입임대주택 1만1700호 등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또 시는 청년·중장년 1인가구가

다인가구와 함께 어울려 거주할 수 있는 '세대통합형 주택 모델'을 개발해 2026년까지 1300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1인가구 안심 종합계획'이 나 홀로 가구를 위해 그간 서울시가 추진해온 정책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현재 여성가족 정책실, 복지정책실, 주거 부서 등 여러 군데에 흩어진 사업을 정리해 시민들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전까지 각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시행해온 사업을 오늘 한꺼번에 모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조직편재를 어떻게 바꿔야 1인가구를 실효성 있게 지원할 수 있을지 머릿속에서 구상 중"이라며 "오늘(18일)은 일단 새해를 맞아 작년에 가장 강조한 1인가구 지원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본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서울 가판대·구뚝방 감소... 보행환경 개선

보도상 영업시설물 10년새 40% ↓
"방치된 시설물 철거... 보행권 확보"

서울시는 보도상 영업시설물(가로판 매대, 구두수선대) 감소로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과거 구두 굽을 갈거나, 버스 토큰, 신문·잡지 등을 판매하며 시민들의 편의시설 역할을 해왔지만, 시대의 빠른 변화와 운영자 고령화 등으로 그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날 시에 따르면 현재(작년 12월 기준) 운영되고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1552개다. 이는 전년 대비 119개소

감소한 수치다. 2011년(2550개소)과 비교하면 39.1% 줄었다.

서울시가 시설물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판매부진에 따른 영업포기가 46건(전체의 38.6%)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물 인근 편의점 증가, 신용카드 미사용 등으로 지속적인 영업부진에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비 위축, 거리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매출급락으로 영업포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영업부진 다음으로 고령 운영자의 영업포기가 24건, 운영자 사망이 14건으로 각각 20.2%, 11.8%를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시는 보행권

우선 원칙에 의거해 시민의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상 영업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왔다"며 "운영포기, 허가취소 등으로 보도에 방치돼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2월부터 매각·철거 절차를 진행하고, 도시 미관과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3년 주기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자산 조회를 실시하고, 자산가액 4억50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갱신을 제한하고 있다. 2022년 자산조회는 4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나서

민간사업 추진... 2028년 완공 목표

의정부시는 장암동 소재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3개의 처리장을 최신 기술을 적용해 지하화하고 시설 상부에는 환경친화적인 공원을 조성한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악취문제를 해결 할 수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 공공하수처리시설은 30년 이상 경과돼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설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초 조성 당시에는 의정부 외곽에 위치했지만 현재 지하철 1호선 회룡역



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조감도.

및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입지함에 따라 악취 등 각종 민원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착형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이 필요하게 됐다.

사업 착공까지 약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최종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울시는 2021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서울 거주자 중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일반·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 또는 5년 이내 졸업생이다.

시는 한국장학재단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에 대해 학기별(연 2회, 상·하반기) 기 발생한 이자액을 사후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3월 14일 오후 6시까지다. 지원 희망자는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현정 기자

서울시,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오염물질 배출업소 144곳 집중 단속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에 환경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감시 활동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각 자치구가 단속반을 꾸려 환경오염 취약지역과 인근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와 폐수 무단배출행위 등을 조사하는 활동이다.

먼저 시는 오는 28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44곳을 대상으로

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자치구 소속 공무원 총 48명을 투입해 오염물질 무단방류 우려가 큰 사업장을 순찰한다.

설 연휴 기간인 이달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하천오염 예방을 위한 단속반을 편성해 감시 활동을 벌인다. 서울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총 58명이 상수원 수계, 공장 주변, 폐수 배출업소를 집중 순찰한다. 시는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의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물환경보전법' 규정을 적용,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44 | 해질 / 17:41

1월 19일 (수) 음력 : 12월 17일

수도권 날씨 -7 ~ 0°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11/-1, 동두천 -9/-1, 가평 -11/-1, 양평 -9/1, 용인 -6/1, 평택 -10/3, 수원 -6/1, 인천 -6/-1, 파주 -12/-1, 백령도 -3/-1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항공업계, 5G서비스 이틀 앞두고 "항공대란 우려" 재차 경고 /사진 뉴시스
▲중국, 올림픽 참가자들 식품불안·전화해킹 가능성 정면 반박

▲중국 '기후대응 역행' 작년 석탄생산량 역대 최대
▲"홍콩서 동물-사람 간 코로나19 전염 의심 사례 나와"



▲WHO "영국, 터널 끝 빛 보인다"... 팬데믹 종식 가능성 시사 /사진 뉴시스
▲세계은행 "개선되던 국가별 소득격차, 팬데믹에 다시 벌어질 듯"



[라이프] 이승준의 오리온號 출범 R&D·글로벌 공략 너



Life

매일 아침 내 손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과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감염속도 델타의 3배... 팬데믹 종식 향한 마지막 싸움되나

오미크론 긴급진단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습격이 시작됐다. 국내에선 지난 해 12월1일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40대 목사 부부가 처음 오미크론 감염 사실이 확인된 이후 지난 15일까지 총 5030 명의 누적 감염자가 나타났다. 전체 검출률은 26.7%로 직전주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규모였다. 질병관리청 분석에 따르면 이번 주말께 국내 오미크론 검출률이 50%를 넘어서며, 델타를 밀어내고 새로운 우세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는 감염력은 폭발적으로 높고, 증상은 상대적으로 가볍다. 이에 따라 오미크론의 본격 확산이 시작되면 국내에서도 일일 신규 확진자 2~3만명씩 쏟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증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 격리 기간은 줄어들고, 동네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료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존 K-방역 방식과 의료 대응 체계도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은지 3년,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셈이다.

다행히도 오미크론은 마지막 전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싸움이 끝나면 인류는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국경을 넘으며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기대도 커지고 있다. 외신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 오미크론의 감염은 훨씬 빠르다.

“델타변이보다 2~3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3일에 감염자가 두 배씩 증가한다는 일관된 증거가 있다.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2일만에 1000명을 넘겼다. 델타 변이가 1000명을 감염시키는데 78일 걸렸던 것을 감안하면 전파 속도는 2배 이상 빠르다. 오미크론 변이가 급증하는 이스라엘에서는 감염 재생산지수가 2.05라고 발표했다. 확진자 1명이 2명 이상을 감염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오미크론 확산에는 어떤 강력한 봉쇄 조치도 소용이 없었다. 델타 변이를 다루던 방식으로는 오미크론 변이를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가.”

- 오미크론이 덜 치명적인 것은 맞나.

“오미크론은 감기처럼 주로 상기도(기도의 상부)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기 때문에 하기도(기도의 하부)를 침범하지 않아 폐렴으로 악화되지 않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조사한 결과 델타 변이 감염자 가운데 입원 환자가 14%인 반면, 오미크론은 5%로 3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입원기간도 오미크론은 4일로, 델타(8일)의 절반이며 사망자도 오미크론이 델타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초기 오미크론 감염 환자 40명의 임상 증상 결과를 분석한 결과, 52.5%인 21명이 경증이었으며 나머지 47.5%는 무증상이었다. 폐렴 의심 사례는 6건에 그쳤고, 모두 경미했다.”

- 그럼에도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이유는.

“세계보건기구(WHO)는 입원 위험이 낮다고 오미크론을 감기처럼 ‘순한’ 바이러스로 취급돼선 안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감기와 독감은 오미크론만큼 전염력이 크지 않다.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보건 의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환자가 넘쳐 다른 환자들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 특히 경증과 무증상자들은 그만큼 감염을 인식하지 못해 오미크론을 전파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가. 이 때문에 오미크론은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고위험군의 피해를 막는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 기존 백신은 소용이 없는건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에는 덜 효과적이라고 하더라도 중증과 사망 예방효과는 충분하다. 2차 접종 후 5개월이 지나면 감염에 취약해지



지난 12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왼쪽부터) 이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오명돈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전재현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임상연구 센터장. /손진영기자 son@

오미크론, 이번 주말 우세종 될 것 하기도 침범하지 않아 증상 경미 조기진단으로 위험군 피해 막아야

백신, 중증·사망예방 효과 충분 3차 접종시 중화항체 100배 증가 자가진단 확대 등 새 대응전략 필요

오미크론 가파른 확산 후 급감 추세 2개월 내 팬데믹 종식 전망도 엔데믹으로 남을 가능성 높아

기 때문에 3차 접종은 하는 것이 안전하다. 3차 접종을 마치면 나이와 관계 없이 중화항체 값이 100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추가 접종이 위험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WHO와 유럽의약품청(EMA)에서 같은 백신을 짧은 간격으로 계속 접종하는 것이 면역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4차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하는데 적용되며, 오미크론 변이 확산 상황에서 3차 백신까지는 맞을 것을 권하고 있다. 화이자 3월 오미크론 변이주 백신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하긴 했지만, 아직 효과를 가늠할 수 없고 국내 언제 공급이 될지도 알 수 없다. 지금으로선 3차 백신이 유일한 대응 방안이다.”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을 위해 새로운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검사-추적-치료(3T)로 이어지던 기존 방역 체계를 대폭 수정, 유전자 증폭(PCR) 검사는 고령층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확대하기로 했다. 집에서 자가진단을 통해 양성인 경우라면 연령과 상관 없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경증 환자 폭증에 대비해 재택치료 관리

를 강화하고, 호흡기 클리닉, 이비인후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 새로운 대응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오미크론은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스스로 검사를 통해 조기 격리와 치료를 해야 전파와 위중증 환자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이제 먹는 치료제도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재택치료나 동네병원 진료 만으로도 충분히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음압 병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 체계는 과하며, 오미크론을 감당할 수도 없다. 중증 환자를 최대한 보호하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는 바이러스가 코와 목에서 활성화 되기 때문에 자가검사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 증상 발현 2일 전부터 발현 후 5일까지 바이러스 양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기간 신속항원 검사를 1~3일 간격으로 두 번 한다면 PCR 검사와 비슷한 정확도를 얻을 수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피해를 줄려면 개인이 집에 자가진단 키트를 상비적으로 갖추고 자주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료제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화이자 경구 치료제 팩스로비드 효과는 뛰어나다. 이스라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 경구 치료제 팩스로비드를 복용한 확진자 가운데 60%는 하루만에 증상이 호전됐고, 92%가 3일만에 증세가 나아졌다. 국내에도 확진자가 급증할 것을 감안하면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팩스로비드’도 충분한 물량을 빨리 확보해야 한다. 기존 치료제를 활용 방안도 필요하다. 기존 항체 치료제(렉키로나)는 오미크론에 효과가 떨어



화이자가 개발한 오미크론 경구용 치료제 ‘팩스로비드’

어지기 때문에 델타 변이에는 렉키로나를, 오미크론 경증 환자에는 렘데시비르를 투여해야 한다. 팩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운 고혈압, 당뇨 환자 역시 렘데시비르로 대응해야 한다.”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의 마지막 고비가 될 것이라 희망도 나온다. 국내 전문가들은 다음 주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이 다음 달 정점을 찍고 이후 가파르게 감소해 2개월 안에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 오미크론의 유행 기간은 2개월로 보는 것이 맞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산세는 가파르게 증가했다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거꾸로 세운 V자 모양을 보이고 있다. 남아공과 미국, 영국도 확진자가 한달간 급격히 늘고 정체를 거친 후 급감하는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영국은 1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7만여명으로, 지난 4일 역대 최대치인 21만8000명을 기록한지 10여일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미국 역시 지난 10일 134만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4일만에 87만명으로 급감했다. 이런 현상은 전파력은 강하지만 증세가 가벼운 오미크론 특성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오미크론을 끝으로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수 있다.

“적은 확률로 기존 변이의 면역 반응을 완전히 회피하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팬데믹의 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완전한 종식으로 보긴 어렵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엔데믹(토착병)으로 남아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엔데믹은 팬데믹과는 다르게 바이러스가 더 이상 사회,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임을 뜻한다. 오미크론 변이 이후 마스크 착용이나 거리두기 같은 방역조치 없이 일상 회복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느림의 미학’ 유희관, 101승 남기고 은퇴 /사진 뉴시스
▲ 프로농구 선수 애장품 경매수익금 1천만원, 승일희망재단에 기부

▲ ‘올림픽 출전 불발’ 심석희 측 “항고 의미 없어...결과 아쉽다”
▲ 국기원, 16년 만에 ‘태권도 교본’ 개정판 발간



▲ ‘새해 첫 월드컵’ 펜싱 男 사브르 단체전 우승·女 준우승 /사진 뉴시스
▲ 3년 만에 열리는 V리그 올스타전... 23일 광주 개최